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9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8월 2일) 2024년 9월 4일 수요일



한국 · 불교, 널리 알릴게요! 연등회보존위원회는 8월 24~25일 1박 2일간 서산 보원사 일대에서 연등회에서 활동할 15명의 외국인 서포터즈를 위해 캠핑에 템플스테이를 접목한 '캠플스테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서포터즈의 국적은 러시아, 아르헨티나, 베트남, 아르메니아, 멕시코, 브라질 등 6개국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한국에 체류하는 학생, 직장인들로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50여 명의 연등회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행사를 돕는다. 글 · 사진=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 선명상 지도법사·지도자 양성 나선다

9월 12~15일 지도법사 과정 개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50명 대상
10월 중 재가 지도자 과정 진행
지도 인력 확보로 선명사 대중화
담양에 선명상 센터 건립 추진도

조계종이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지도 인력 양성에 나선다.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8월 24~25일 열린 '선명상 아카데미 템플스테이' 회향사에서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지도법사와 지도자 양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원 스님은 "선명상 강의를 수강한 인원들을 중심으로 현장 포교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선명상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오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스님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지도법사 양성 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원 스님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서 선명상 지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를 지도할 인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차적으로 스님 50명을 한정해 수강자를 모집하며 이중 시험을 거쳐 약 40%를 지도법사로 선발할 계획이다. 재가 지도자 과정은 오는 10월 중 개설한다.

성원 스님은 "향후 6개월 주기로 지도자 양성 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라며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원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하드웨어적 인프라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스님은 "현재 미래본부를 중심으로 담양에 선명상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선명상 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관련 부지와 예산은 확보된 상황"이라며 "서울 안암동에는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사찰 지원과 지도자 워크숍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선명상 중앙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9월 28일 열리는 불교도 대법회와 10월 1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되는 국제선명상대회의 적극적인 참석도 독려하며, 선명상 아카데미 수료자들에게 선명상 대중화의 선두가 되어줄 것을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광화문, 9월 28일 명상중심된다

조계종, 광화문 불교도대법회
사부대중 3만명 동참…5분 명상
108 선명상법 제시로 마음평화
수계의식·승보공양·음악회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초가을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선명상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가 펼쳐진다.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하는 '5분 선명상'을 비롯해 조계종에서 야심차게 준비 중인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은 8월 2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 불교도 대법회' 봉행 계획을 공개했다. 전국에서 사부대중 3만 명이 동참하는 불교도 대법회는 수계의식, 승보공양, 국제선명상대회, 음악회 등으로 구성됐다. 불교 전통의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규범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이를 함께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체 규범 제시할 '수계의식'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수계의식은 불자들이 지켜야 할 오계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 수지하는 자리다.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눔을 생활화 하자' 등 공동체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제시한다. 이번 수계의식은 전통 불교의식의 장엄한 연출효과를 통한 국민공감과 감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원로의장과 전계대화상을 증명으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수계법사로 나선다. 장궤합장과 큰절 등 전통의식으로 진행되며 수계법회의 여법함과 장엄함을 위해 무대 앞 중앙 600석은 좌식으로 준비됐다. 계층별(어린이, 청소년, 청장년), 부문별(신도회, 각급 기관 및 단체, 노동자)로 600여 명을 사전 선발한다.

'승보공양'으로 신뢰 · 공경의 메시지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승보공양 법회는 승보공양 의식을 통해 신뢰와 존경, 존중과 공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체의 최소한의 규율은 오계의 덕목과 내 감정을 절제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공경의식을 시연한다. 조계종은 승보공양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ARS도 개설했다. 060-700-7070으로 전화하면 한 통화에 1만원을 후원할 수 있다.

'5분 명상'으로 순간의 고요함 만끽

오후 4시부터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국제선명상대회가 열린다. 국제선명상대회는 한국불교가 지켜온 정신적 가치와 전통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마음의 평화, 세계평화, 국민 행복의 마중물이 될 선명상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개막식에서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조계종이 진우 스님의 진두지휘로 1년간 준비해 온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특히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명상 선포가 눈길을 끈다. 진우 스님이 '5분 명상'을 선포함과 동시에 광화문 광장은 3만여 불자들이 동참한 5분간 '순간의 고요함'이 연출될 전망이다. 선명상이 이어지는 5분간, 광화문 일대가 고요와 평안으로 물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선명상 후에는 모든 대중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평화의 기도' 합송으로 국제선명상 대회는 마무리 된다. 조계종은 이후 전 국민이 하루 5분간 선명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급해나갈 예정이다.

집행위원장 성화 스님은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사회 양극화, 세대·이념·계층간 갈등, 무한경쟁,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병리현상 극복을 위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정신문화혁명을 이끌고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선명상이 세계 정신문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기대했다.

감동 · 환희 넘치는 행복 음악회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음악회는 내 안의 평화, 국민화합과 세계평화의 염원을 담은 감동과 환희, 행복의 무대로 꾸며진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사회로 스님들로 구성된 선명상 포교 프로젝트 그룹 비텐스, 상월비보이 '이에이트 크루', 가수 최예림과 김태연, 뮤지컬 배우 최정원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조계종은 대형LED를 활용한 무대 연출과 특수효과를 통해 감동과 환희의 무대를 선보이는 한편 K-선명상을 전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월 23일부터는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에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9월 23~28일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을 주제로 전통등이 전시된다. 금산사 5층 석탑등, 감은사지 석탑등, 미륵사지 9층 석탑등, 불국사 석가탑등, 사유의 공간, 비천등, 연꽃등 등이 전시된다. 9월 25~27일에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길'을 주제로 전통문화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2면 집행위원장 성화 스님 인터뷰 이어짐

현대불교신문 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공모

다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창간 30주년을 맞아 재도약하는
현대불교신문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 경영자를 모십니다.

- 공모 직위 : 사장
- 임 기 : 3년
- 자격 요건
  - 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 불교언론사로서 정론직필하며, 세상과 소통 공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자
  - 국제 감각과 뉴미디어를 포함한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 (사진 첨부, 서명 날인)
  - 자기소개서 1부 (경력 및 업적 중심, A4용지 4매 내외)
  - 경영계획서 1부 (후보자 본인의 의사를 기초로 작성해야 함, A4용지 6매 내외)
  - 이력서에 기재한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제출 기간 등
  - 제출 기간 : **8월 21일(수)부터 9월 4일(수)까지**
  - 제출 방법 및 제출처 :
    – 등기우편 (부산시 영도구 함지로 79길 23-26 현대불교 부산지사)
    – 이메일 (wiseway3@hanmail.net)
  - * 응모 접수는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 면접 심사 (필요 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실시
- 기 타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모는 본인 이외에 추천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사(02-2004-8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dongguk UNIVERSITY
2023 중앙일보 대학평가 3년연속 TOP10 8위



* 선택 가능 전공 예시

더 나은 나를 위한 더 좋은 선택
열린전공학부
입학 후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누구나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융합적 사고를 함양합니다.

열린전공학부(모집단위 광역화)
무전공으로 입학 후 1년 동안 전공탐색 기간을 거친 후 2학년 진급 시 원하는 전공 선택 (일부 전공은 선택 범위에서 제외)
- 인문/자연 문과/이과/법과/사회과학/경찰사법/경영/공과/첨단융합대학 내 모든 전공 선택 가능
- 바이오시스템대학(단과대학 모집) 바이오시스템대학 4개 학과 중 선택 가능

동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2024.09.10.(화) ~ 09.12.(목)

성화 스님 인터뷰

“선명상 진면목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 기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이제는 정신 문명의 시대입니다. 국민들의 정신을 선명상으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이끌겠습니다.”

2024불교도대법회 개막을 한달여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집행위원장 성화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이 “정신 문명을 매개로 하는 마음건강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화두로 부각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계종은 9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될 불교도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에서 ‘5분 선명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5분 선명상’은 번잡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요한 명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성화 스님은 ‘정신 문명 시대’를 강조하고 “국민들의 정신을 선명상으로 건강하게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성화 스님은 “세대와 사회갈등, 정치적 대립 등으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국민이 많고, 특히 젊은이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아무리 풍요로워도 행복해질 수는 없고 정신적 고통을 물질적인 조건만으로 해소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5분 선명상’을 강조한 성화 스님은 “바쁜 일상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대인에게 5분 선명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국제선명상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개발한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도 공개된다. 이는 국민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이다. 국민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제선명상대회 이후에는 선명상 법사와 지도사를 양성, 전국 사찰과 템플스테이에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성화 스님은 한국의 선명상에 대해 “세계 정신문명을 선도하는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괴로움이라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제4차 산업 최첨단 과학문명 시대에도 여전하고 물리적, 물질적 문명의 발달만으로는 평안하지 못하는 한계에 걸려있다”면서 “물질문명을 넘어 정신문명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 제5차 산업혁명은 정신문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28일 광화문에서 펼쳐지는 국제선명상대회는 선명상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선명상은 궁극적으로 간화선, 즉 높은 수행의 길로 가게 해주는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조계종은 108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선명상 교재를 적극 제작하고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일반에 선명상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우리아이가 우리 미래다”

8월 23일, 저출생극복본부 출범
종교계 대표 진우 스님 등 함께
“출산 · 양육 존중받도록 할 것”



국내 종교계,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가 ‘저출생극복추진본부’를 출범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저출생극복추진본부는 8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사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부문이 대규모 조직을 만들기는 처음이다.

저출생극복추진본부는 종교계,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등 민간 주요분야가 총망라됐다. 각계의 대표적인 인사 5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종교계 대표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경제계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금융계 대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학계 대표는 이광형 KAIST 총장, 방송계 대표는 박민 KBS 사장이 맡았다.

각계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들은 ‘우리아이 우리미래’라는 표어 아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 스님은 가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7대 종교계의 저출생 극복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인간 생명의 소중함,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될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불교계가 시행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과 선명상센터 건립 등을 설명하며 “긴장, 경쟁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불암감을 해소시켜 주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각계의 활동 계획 발표 후 공동대표들은 ‘저출생극복추진본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 계획과 협력 의지가 담겼다. 또 이날 출범식에서는 방송인 홍현희, 제이슨 부부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저출생극복추진본부는 앞으로 주요 사업 시행을 위한 조직을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식 명칭도 확정할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민주당 전통문화특위 “불교 정책 제도 개선 노력”

8월 27일, 봉녕사서 정책 워크숍
전통문화 · 불교 현안 의견 공유
김영배 의원 “제도 잘 살필 것”

조계종과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불교특별위원회가 8월 27일 수원 봉녕사에서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불교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은 22대 국회 출범 후 전통문화특위가 마련한 첫 공론의 장으로 전통문화 보전과 지원뿐 아니라 사찰림 가치 평가, 봉안시설 설치 등 불교 관련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기획실장 우봉 스님,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특위 위원장 김영배 의원과 이수진, 김동아, 염태영, 전진숙, 김병주, 곽상언, 이광희, 박희승, 민병덕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본격적인 워크숍에 앞서 전통문화불교특위 위원들은 봉녕사 대적광전을 찾아 참배했다. 주지 진상 스님은 의원들을 환영하며 “부처님 가르침 중 신, 구, 의 삼업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많다”면서 “그중 말로써 실수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이 있다. 국회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가슴이 답답함보다는 뭔가 소통이 되는 시원함을 느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참배 후에는 봉녕사 승가대 학감 도연 스님의 안내에 따라 경내를 둘러봤다.



민주당 전통문화특위는 8월 27일 봉녕사에서 워크숍을 갖고 불교계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불교 정책 공약을 살펴보고 불교계 관련 주요 입법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불교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을 당부했다. 스님은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 국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통문화특위 위원들이 현안을 명확히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게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기획실장 우봉 스님도 “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우리가 이것을 왜 보존하고 가꿔야 하는지 울림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 워크숍에서는 선명상 및 전통사찰 관련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이어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방식 개선 △전통사찰 경내 지목 현실화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 재평가 및 보상제도 도입 △ 문화재보호구역 내 봉안시설 설치 허용 △일반동산문화유산(비지정문화유산) 긴급 보존 처리 근거 마련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 근거 마련 등 불교계 관련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공유된 것으로 전해진다.

워크숍에 앞서 김영배 위원장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70% 이상이 불교와 관련 유산인 만큼 보존과 계승 발전에 힘써야 한다”면서 “법과 제도, 조직, 문화 등 다각면으로 각별히 협력하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수원 봉녕사=임은호 기자

조계종, 해인사에 화합·종법 준수 당부

“9월 30일까지 방안 도출”
갈등 지속 땐 해종행위 간주
해인사 원로, 주지 사퇴 촉구

해인총림 해인사가 9월 30일 산중총회를 앞두고 방장 불신임으로 내홍을 겪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대중화합을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8월 28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 명의의 공문을 해인사 대중에게 발송했다.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의 표상으로서 위상을 대표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총림 내부 대중들 간의 갈등 모습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승가공동체의 최고 덕목으로 화합을 강조하며 “9월 30일까지 문중간의 중지를 모아 해인총림의 위상에 맞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총무원에서의 중재역할도 제안하면서 “종단의 우려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인사 내부 문제가 사회로 더욱 더 비화되고 갈등이 지속 확산된다면 해종행위로 간주하고 종헌종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인총림 원로중진스님들이 주지 혜일 스님에게 방장 불신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8월 29일 호법부에 해인사 주지의 승려법 위반 내용이 명시된 고발장을 제출했다. 9월 10일 오후 2시 경내 보경당에서 ‘해인사 안정과 총림 화합을 위한 재적승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서점가에 불교 열풍…MZ 사로잡다

'힙'해진 불교, 2030 사이서 인기
불교 · 명상 관련 도서 판매 급증
'반야심경' 2030 베스트셀러 1위
소요서가 불교철학 강의 개설까지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불교가 MZ의 마음을 사로잡자 서점에도 불교 열풍이 불고 있다. 불교의 핵심을 압축한 반야심경은 올해 2030 세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뉴진 스님, 나는 절로 등 불교가 참신한 변신을 통해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자, 서점가에도 불교 열풍이 불고 있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8월 27일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어로 재해석한 〈초역 부처의 말〉이 9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20위권에 올랐다. 특히 7월에는 2030 세대 내 판매량이 전월 대비 20.9% 상승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을 260자로 함축한 '반야심경'의 인기 역시 예사롭지 않다. 올여름(6월 1일~8월 20일) 2030 세대의 '반야심경' 관련서 구매량은 지난해보다 31.9% 증가했다. 반야심경을 대중의 눈높이로 풀어낸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는 올해 관련 도서 2030 세대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며, 젊은 세대 내 인기를 입증했다.

문학에서도 불교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세계적 문호 헤르만 헤세의 〈싯다르타〉는 첫 출간 후 약 20년 만에 역주행했다. 올해 주요 출판사(민음사, 문학동네, 문예출판사)에서 출간한 〈싯다르타〉 구매자 중 2030 독자 비율은 무려 45.9%에 달한다. 〈싯다르타〉는 부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 '싯다르타'가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종교적 성장소설이다.

스님들의 따뜻하고 간결한 에세이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충분했다. 2030 세대의 구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47.1% 급증하며 법정 스님의 강연록 〈진짜 나를 찾아라〉와 법륜 스님의 〈지금 이대로 좋다〉가 관련 도서 베스트셀러 순위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잠깐의 집중으로 번뇌를 해소하는 '명상' 관련서도 주목받고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과 곽정은 작가의 〈마음 해방〉이 2030 세대 베스트셀러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전년 대비 43.5% 판매가 증가했다.

2030의 불교 사랑은 불교철학 강의로 이어졌다. 국내 최초 철학전문서점 '소요서가'(대표 윤상원)가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소요서가에서 초기불교, 중관학파, 유식불교, 불교논리학 등 불교 내 다양한 지적 전통을 전문가와 함께 공부하는 불교철학 강의를 개설한다. 이번 강의는 불교에 관심이 높아진 청년층에게 불교철학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의는 △불교의 출발점에서 묻는 불교(강성용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장) △유식불교의 이해: 마음은 어떻게 세계를 만드는가(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비어있음의 세계관: 대상화하지 않는 시선을 찾아서(함형석 전남대 교수) △믿음에서 지식으로, 깨달음에서 논증으로: 불교의 논리학-인식론 전통(손영산 서울대 강사)로 진행된다. 회차마다 서울 소재 사찰에서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사찰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54명 청년 불자, 상월결사 정신 이어 '전법·포교' 다짐

8월 24일, 상월청년회 6기 출범
봉선사 청풍루에서 입재식 봉행
호산 스님 "청년 포교의 구심점"



상월청년회 6기 회원들은 입재식에서 '청년불자 전법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월결사 정신을 이어 한국불교 중흥과 전법·포교의 길에 앞장설 54명의 청년 불자가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 상월결사 이사장)는 8월 24일 경내 청풍루에서 상월청년회 6기 입재식을 봉행했다.

상월청년회는 비불자 청년들에게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주겠다는 원력으로 2021년 3월 출범했다.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등으로 구성된 회원들은 매주 법회에 참여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다채로운 불교문화 활동을 경험하며 진정한 불자로 거듭난다. 이번 상월청년회 6기에는 기존 회원 38명에 신규 회원 16명을 포함해 총 54명의 청년 불자가 함께한다. 이들은 매달 세 번째주 일요일 봉선사 청년연합법회와 교리법회, 상월문화법회,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구자희 상월청년회 6기 총무는 경과보고를 통해 "상월청년회는 상월결사 회주 해봉당 자승 큰스님의 전법에 대한 원력과 상월결사 이사장이신 호산 스님의 청년 불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설립된 청년 불자 단체"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한 명의 청년 불자라도 더 전법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은 법문에서 상월청년회가 결성된 배경을 소개했다. 호산 스님에 따르면 2019년 아홉 스님이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에서 정진을 마친 후, 2020년 아홉 스님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그러던 어느 날 동국대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이재준 씨가 호산 스님을 찾아 법문을 청했다. 스님은 그에게 상월결사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스님은 몇몇 학생들을 모아 2박 3일간 수국사 경내에 텐트를 치고 묵언하며 정진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렇게 상월청년회 1기가 탄생했고, 이재준 씨는 회장을 맡았다.

호산 스님은 "상월청년회는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모두를 아우르는 청년·대학생 포교의 구심점"이라며 "불교활동에 적극 참여해 부처님 법을 배우고, 동시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주인공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호산 스님은 "상월청년회가 상월결사 차원으로 조직화 돼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전법의 중심이 되는 청년 불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직접 발로 뛰며 신규 회원을 모집한 박준형 상월청년회 6기 회장은 "불교를 어려워하는 주변 친구들에게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를 활용해 친근하게 다가갔다"며 "6기로 활동하는 6개월 간 불교 전반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내영 기자

대행 선사 경전 번역 불사 의미 살핀다

대행선연구원, 제20회 계절발표회
9월 2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묘공당 대행 선사가 '뜻으로 번역'한 불교 경전들의 특징과 의미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9월 21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20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계절발표회에는 김치온 동방문화대학원대학 연구교수가 '법보(法寶)의 일체중생 불성설과 혜소(慧沼)의 반박에 대한 연구'를,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묘공 대행의 경전 번역'을 각각 발표한다.

김치온 교수는 발표 논문을 통해 '일체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법보(627~705) 스님과 '중생마다 종성이 다르다'는 혜소(651~714) 스님의 논쟁을 소개한다. 최원섭 연구원은 대행 선사가 뜻으로 번역하여 한마음선원에서 독송하고 있는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의 특징과 의미를 정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뜻으로 푼 〈화엄경〉' 간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발표회의 좌장은 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맡았으며, 논평자로는 박재용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진영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장진영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장, 박보람 충북대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시작한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에서는 여섯 번째로 대구지원장 혜공 스님이 대구지원 도량 현황과 불사 과정을 소개한다.

한편, 대행 선사의 한마음 생활참선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교화행을 학술적으로 조명하여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중요한 불교사상을 집중 조명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매년 4회의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031-470-3277

신중일 기자

불교환경연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8월 23일 울산시청 앞서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불교환경연대가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8월 21~23일 3일간 진행한 '전국 임원·활동가 워크숍' 마지막 날인 23일 울산시청 앞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류에 의한 기후위기와 생물대멸종을 목도에 둔 지금 반성 없는 자연개발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연대의 주장이다.

환경연대는 "환경 현안에 역행하는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은 생명다양성과 산사태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사업"이라며 "경제성을 이유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지만, 현재까지 이어진 케이블카 사업은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연대에 따르면 신불산 일대는 많은 멸종위기 보호종이 서식하며 산사태 위험 1등급지가 분포돼 있다. 또한 전국에 있는 41개의 관광 케이블카는 이용객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개통한 밀양 얼음골케이블카는 첫해 2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후 매년 10억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

끝으로 환경연대는 "부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울주군민과 울산시민에게 환경 개발로 인한 후회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비난받지 않기 위해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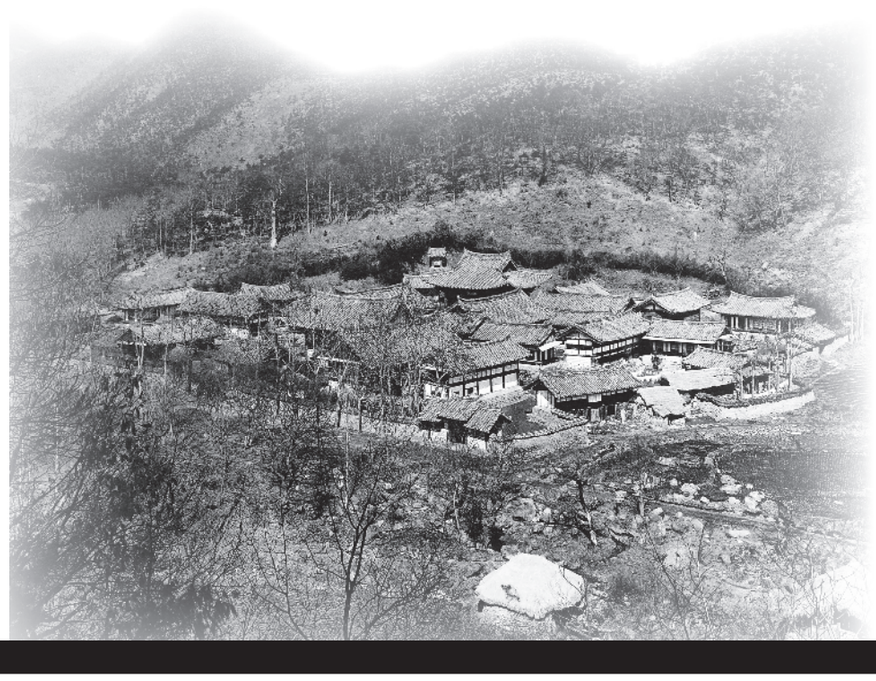
한편, 워크숍은 입재식 이후 △갓바위부처님 참배 △전국운영위 △따라 배우기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탐방 △영남 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회향식 등으로 진행됐다.

김가령 기자

창건 1215주년 은해사 개산대재 기념 영천·경산 승병·의병 추모다례재

조선 1592년 壬辰倭亂 慶北聯合義兵部隊 倡義精勇軍

대한불교조계종 銀海寺 僧義軍 추모다례재



초 대 합 니 다

- 일시 : 2024년 9월 7일 (토) 9시 30분
- 행사장소 : 은해사 특별무대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채식 공동체’ 만드는 건강한 ‘생태식 한끼’

신대승네트워크 수요밥상 현장

매주 수요일 점심 채식 제공
생태채식 통해 환경정의 고찰
“육류 섭취 지양” 취지로 시작
직접 키운 채소 요리 ‘건강 UP’
“누구나 환영하는 나눔의 장”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수요밥상’ 참가자들은 직접 키운 제철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함께 나누며 즐긴다.

불교의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불교환경단체들이 채식 공동체를 일구는 채식 수요밥상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신대승네트워크(대표 이은래)는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와 연대해 8월 28일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수요밥상’ 프로그램을 개최, 참가자들과 채식 점심시간을 가졌다.

‘수요밥상’은 신대승네트워크가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의 지원을 받아 매주 수요일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개최하는 채식 프로그램이다.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지금 육류 섭취를 지양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직접 키운 제철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수요밥상 현장에서 함께 나누며 즐긴다.

이날 수요밥상은 무더웠던 여름을 떠나보내는 의미로 개최됐다. 애호박 고추장찌개, 호박잎쌈, 가지볶음, 돌깻잎볶음, 열무김치 등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여름햇살과 정성이 담긴 진수성찬이었다. 참가자들이 텃밭에서 직접 키운 호박잎, 감자 등이 밥상 위에 모였다. 또한 녹색사찰로 지정돼 친환경운동과 환경법회를 주도하는 하남 상불사도 식재료 가지와 깻잎 등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뚝딱밥상’이라고도 부르는 수요밥상은 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밥과 국, 메인 반찬을 만들면 참가자들이 곁들여먹을 반찬 1~2개를 가져온다. 짧은 시간에 팔첩반상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치 포틀럭 파티(Potluck Party, 참가자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오는 파티 문화) 같은 수요밥상은 2020년부터 이어져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가 2022년 10월 재개됐을 때도 20여 명의 참가자들이 동참했다.

이례적인 폭염을 기록한 이번 여름 신대승네트워크와 불교환경연대는 삼복(초복·중복·말복)에 맞춰 채식 보양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초복에는 우엉버섯들깨탕과 오이탕탕이, 중복에는 콩국수, 말복에는 라따뚜이 등을 만들었다. ‘복날 채식 캠페인’을 펼치며 제공한 가지탕수 레시피도 SNS를 통해 공유했다.

채식이 대부분인 수요밥상에 고기는 없지만 우유, 계란 혹은 멸치액젓 등이 활용된다. 완전한 비건(Vegan, 과일과 곡식·채소만 먹는 채식주의)보다 자연 존중의 ‘생태식’을 지향해 채식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한주영 환경연대 사무총장은 “일반인에게 채소만 있는 식단은 처음에 거부감이 있다 보니 우유, 계란 등도 재료로 활용해 이것을 ‘생태식’이라고 이름 붙였다”며 “이를 통해 채식의 접근성을 높여 많은 사람의 채식 동참과 식품 생산과정의 윤리성을 다시 생각해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요밥상은 채식을 권장하는 동시에 ‘채식 공동체’를 만든다. 신대승네트워크는 일주일에 하루 다 같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이들을 ‘식구(食口)’라고 불렀다.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은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사회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앞으로 불교환경단체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다”며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공동체인 ‘식구’가 됨을 뜻한다. ‘수요밥상’을 통해 하나의 채식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봉은사, 49일 생전예수재 입재식 봉행

8월 24일 입재, 10월 10~11일 회향
매주 육바라밀 수행 법문·시식
“육바라밀 실천 불자의 삶 되길”


8월 24일 입재한 봉은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는 10월 11일 회향한다.

봉은사가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52호 ‘봉은사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49일 기도에 돌입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8월 24일 경내 법왕루에서 생전 업장을 미리 닦는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생전예수재는 죽은 뒤에 행할 불사(佛事)를 살아있을 때 먼저 닦아 사후의 명복을 빌기 위한 불교전통의례이다.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최초로 등장하는 생전예수재는 고려시대부터 시작해 조선시대 중기에 성행했다. 문헌기록에는 ‘예수재’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으나 기록에 쓰인 의례의 식순을 보았을 때 지금의 예수재로 인정되고 있다. 기록의 경기도 광주 봉은사가 현재 서울 봉은사이며 최초로 생전예수재를 설행한 도량으로 알려진다.

입재법회에서 원명 스님은 육바라밀(六波羅蜜)을 실천하는 불자의 삶을 당부했다.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나와 불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리이타행”이라며 “항상 나를 맑고 향기롭게 하며 49일간 기도하면 좋은 업이 쌓이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입재식은 법안 스님, 설호 스님의 집전으로 헌공·시식의식이 진행됐다. 영가에게 음식과 법문을 베푸는 시식의식에서는 대중이 참여해 아미타부처님 앞에 헌다하고 업장소멸을 발원했다.

봉은사는 입재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경내 법왕루에서 일곱차례 재를 지낸다. 8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주제로 법문과 시식을 진행한다. 9월 24일 화요일에는 명부에서 사용하는 금은전을 찍어내는 택전점안의식이 예정돼 있다. 10월 10~11일에는 불교의례 전통방식으로 회향식을 봉행한다.

한편, 봉은사는 2017년 ‘(사)생전예수재보존회’를 설립해 생전예수재 전통을 전승, 보존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가령 기자

생명나눔, 일면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학인 및 학생 20명에 1700만 원



재단법인 일면장학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학인스님과 불자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8월 26일 서울 법인사무국 회의실에서 일면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전달식에서는 학인스님 12명과 불자학생 8명 등 총 20명에게 1700만원이 전달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전달식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가진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학금 수혜자 도원 스님은 “장학금을 소중히 여기며 학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학생들은 이날 전달식에 앞서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 신청서도 작성하며 생명나눔에 힘을 보탰다. 임은호 기자

진흥원, 박경준 교수 초청 화요강좌

9월 10일, 다보빌딩 다보원서
‘불교적 생활 지침’ 주제로

대한불교진흥원이 일상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불교적 생활 지침’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한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9월 10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BBS) 3층 다보원에서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명예교수를 초청해 ‘현대 불자들의 불교적 생활 지침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화요열린 강좌를 개최한다. 박 교수는 〈붓다의 생활 수업〉을 교재로 일상 전반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불교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준 동국대 명예교수는 불교학 연구회장, 〈불교평론〉 편집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군승법사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불교사회경제사상〉 〈불교학의 사회화 이론과 실제〉 등이 있으며 〈근본불교와 대승불교〉 〈지구를 구하는 경제학〉 등을 번역했다. 02-719-2606 김민재 기자

“사회적 약자 위해 보금자리 마련해요”

중신회, 호압사 신도회와
독거노인 도배 · 장판 지원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지역 약자에게 깨끗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8월 12일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사회적 약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2024 사회적 약자와 이웃사랑 실천운동’(이하 2024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진행했다.〈사진〉

‘2024 이웃사랑 실천운동’은 7대 종교(불교·개신교·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민족종교협의회의) 평신도단체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대표회장 김회인)가 주최하는 사회 공익 운동이다. 이번 사업은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호압사 신도회가 주관했다.

이날 전문 시공업체와 봉사자들은 금천구청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 수급 및 요양보호 대상자인 독거노인을 지원했다. 노후화된 방 2개와 거실의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김민재 기자

제41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4년 9월 28일~11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후 1:30~5:30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문 의 : 031-470-3200/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8월 24~25일 진행된 선명상 아카데미 템플스테이에는 160여 명이 동참, 언제 어디서나 평안할 수 있는 선명상의 세계로 들어갔다.


금강 스님의 지도로 진행된 걷기 명상 시간.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을 들으며 좌선하는 모습.


친근감있는 분위기 속에서 혜민 스님의 강의가 이어졌다.

선명상, 실천할 결심이 생겼나요

조계종 미래본부 공동기획

'선명상 아카데미 템플스테이' 현장을 가다

혜민 스님에게 실참 강의 들어
"마음 두는 생각, 커지고 세져
감사일기 작성, 긍정적 생각을"

금강 스님, 아침 걷기 명상 진행
소참 법문서 "올바른 수행" 강조
참가자들 "수행 결심" 한목소리

공주=신중일 기자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이 커집니다. 그리고 더 큰 힘을 발휘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걱정, 근심, 불안, 분노의 감정과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정적 감정들이 계속 돌면서 점점 커지고 세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미소방. '선명상 아카데미 템플스테이'의 강사로 참여한 혜민 스님이 대중들에 던진 첫 질문이다. 이내 참여 대중이 평화, 베품 등의 답을 내놓자, 스님은 방긋 웃으며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8월 24~25일 '선명상 아카데미 템플스테이'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일곱 차례에 걸쳐 직접 강의했던 '선명상 아카데미'의 대미로서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혜민 스님(고담선원장), 혜주 스님(진관사 명상센터장)이 선명상 강사로 나서 대중들을 지도했다. 템플스테이 참여 신청 당시 기자는 혜민 스님 강의를 신청했다.

이날 혜민 스님의 강의는 평소 자신이 가진 습(習)들을 다시 돌려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스님은 대중들에게 최근 감사했던 에피소드를 생각하라고 했다. 주어진 시간은 3분. 아무리 쥐어짜도 감사한 일이 생각보다 생각나지는 않았다.

"생각을 마쳤나요? 이제 옆사람을 바라보시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감사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듣는 분은 상대방을 바라보고 판단말고 들어주세요."

5분 동안 감사했던 생각을 이야기해보라는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는 옆에 앉아있던 김택기 서울 양천 재향군인회장도 비슷한 듯 했다. 소소한 감사의 이야기가 흐르자 이내 둘은 마주보며 배시시 웃기만 했다. 더 할 말이 없어서다. 얼마나 평소 '감사'라는 두 마디의 단어를 박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반증이다.

다음날 아침에는 걷기 명상과 선명상 강사스님들의 소참법문이 진행됐다. "매일매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삶을 향상시키기란 어렵다"고 밝힌 금강 스님은 소참법문에서 선명상을 통한 육바라밀행을 강조하며, 진실된 자신을 찾기 위해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저는 항상 수행의 마지막 목적으로 '자비심'을 강조합니다. 자비심을 일으키려면 밝은 지혜가 있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이건 내가 했어'와 같은 마음으로 자비를 행한다면 마지막에는 도리어 나에게 화를 불러 일으킵니다. 항상 자기 마음의 주인이 돼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진실된 자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수행을 하십시오."

혜주 스님도 자비와 미소로 타인을 좀 더 부드럽게 대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 삶에 미소 한 스푼, 자비 한 스푼 섞어 나 자신과 타인에 조금 더 부드럽고 다정하게 자비를 나누며 살아간다면, 지금보단 조금 더 풍요롭게 지혜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미소 한번 지으며 명료히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사유해 보시라. 여러분 자신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선명상의 진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부터 두 달여 일정. 참가자들은 삶을 변화로 이끌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정원주 제28대 중앙신도회장 당선인은 "진우 스님이 말씀하신 5초 우선멈춤 선명상이 참으로 도움이 된다. 화가 올라오더라도 5초간 멈추면 확실히 화라는 감정이 작아지는 것이 느껴진다"면서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5초동안 멈췄다가 결정하면 결정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김유리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는 "학교에서 선명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지난 학기에는 학생들에게 선명상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돌아오는 학기에는 학생들과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음평안 이르는 '선명상' 리더들, 대중화 노력해달라"

진우 스님, 8월 24일 템플스테이서 강조

두 달여 간 일곱번의 이론 강의로 진행된 '진우 스님의 사회 리더를 위한 아카데미'의 대미를 장식하는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지도법사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 리더들에게 "대중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8월 24~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선명상 아카데미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인연되어져,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돼 있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니 매 순간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라."

8월 24일 봉행된 입재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내레이션한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영상이 시작되자 160여 명의 참석자들은 평안한 마음과 자세로 선명상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이어 법상에 오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입재법문에서 "선이 곧 명상"이라며 선명상 정의를 내리고 "조계종지로 수행하는 간화선은 수행자들에게도 어려운 것으로, 대중화하기 쉽지 않아 현대인의 언어와 사고에 근접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나가기 위해 선명상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명상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론과 논리가 완벽한 불교를 이해시키는 일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스님은 "명상 전문가들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겪는 괴로움을 떨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할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더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마음 들여다 보기'를 강조했다. 스님은 "과학 발전과 문명진화에도 중생 괴로움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감정의 결과물인 괴로움은 선명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강의들에서 언급한 '하루 5분 무시로 명상' '그림자 명상' '5초 우선멈춤' '놓음 방하착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을 평온히 하고 감정기복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한 스님은 "감정기복 없이 현상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며 "에너지가 크게 소모되는 감정은 단지 현상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감정상태를 일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학문명 발달에도 내면의 괴로움이 그대로인 이유는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스님은 감정기복을 없애는 방법으로 신구의 삼업청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자들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자신의 업식이 바뀌며 몸과 마음이 바르게 될 것"이라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선명상 생활화로 인생을 잘 가꿔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9월 28일 열릴 국제선명상대회와 10월 미국 현지 강연을 통한 선명상 세계화 준비 과정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선명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진우 스님의 사회리더를 위한 선명상 아카데미는 6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7강에 걸쳐 진행됐다. 1강 '두려움 없애는 힘을 가진다'에 이어 '나의 미래를 내가 알아내는 과학적인 방법' '이것 모르면 빌 게이츠도 괴롭다' '내 마음 감정의 뿌리를 알아야 좋은 기분을 가진다' '죽어도 결국 산다'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주=임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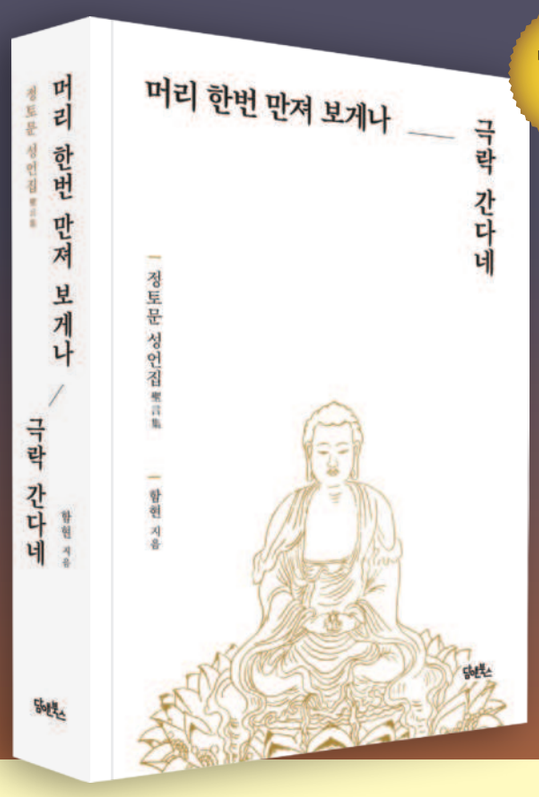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사회 리더들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의 '정토행자' 공표
정토신앙으로 안내하는 '염불수행 지침서'

정토문 성언집(聖言集)

머리 한번 만져 보게나 — 극락 간다네



담앤북스 최신간

함현 지음 | 150x210 | 432쪽 | 18,000원

"나는 공성(空性)의 오두막인 극락정토를 장엄하는 살림꾼,
아미타부처님의 본원(本願)을 깊이 믿고 널리 권하는
정토의 종지기가 될 것입니다."

이보게 함현!
이제 머리나 한번 만져 보세나.
머리를 돌려 스스로를 보아야 하네.
눈빛을 되돌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네.
그래야 출가의 첫 뜻을 저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지 않겠는가.
_본문 중에서

| 도솔 함현 兜率 涵玄 |
속리산 법주사에서 월암당 이두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극락선원, 대승사, 동화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 지리산 선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북한산 도솔원에서
수행정진을 마치고 현재 충청북도 청주 관음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문의 (02)765-1251 가까운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담앤북스

“일본 대마도 차의 성지에 최초 한국사찰 문 열다”

8월 23일, 황룡사 개원 법회 봉행
(사)향기로운문화동행 대마도 지부
대마도 한국 최초 사찰 의미 깊어
이사장 보혜 스님 ‘문화포교’ 원력
법당·요사채 등 2500평 규모

일본 대마도=하성미 기자



한국과 일본 불교의 선문화와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황룡사가 일본 대마도에 문을 열었다. 황룡사는 8월 23일 경내 일원에서 현판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한국과 일본 불교의 선문화와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황룡사가 일본 대마도에 문을 열었다. 황룡사는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 스님)의 일본 대마도 지부이며 차문화와 불교, 선명상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황룡사는 일본 대마도 한국 최초 사찰이며, 대마도 히타카츠에는 불교 사찰이 없어 의미가 크다.

황룡사는 8월 23일 경내 일원에서 현판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개원법회에 앞서 내빈들은 입구에서 테이프 컷팅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제막을 하자 한글과 한자로 적힌 황룡사(黃龍寺)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황룡은 말 그대로 황금용을 의미하며, 바다와 산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황룡사의 위상이 마치 바다의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큰 기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린다는 의지를 담았다.

개원법회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의 증명으로 진행됐으며,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금강암 주지 도산 스님, 김대철 여천차문화원 원장, 최순애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 김홍희 작가, 신중식 목사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회는 점안의식에 이어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차 공양, 법문 및 축사, 인사말 순으로 이어졌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세상에 많은 공덕이 있지만 불사를 해서 부처님을 모시는 공덕보다 더 수승한 것이 있겠느냐”며 “그 공덕은 한국을 넘어 일본 그리고 세상 모든 생명의 공덕이 되고 자비심의 계기가 된다면 무량광불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룩한 불사로 회향하는 것이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여 대종사는 “이곳은 바로 앞이 바다요 뒤에는 산이 있는 최고의 명당이며, 이곳이 이사장 보혜 스님의 큰 원력을 만나 뜻깊은 개원 법회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축원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문을 열기까지 오늘 마음을 내어 봉사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보혜 스님은 일찍부터 문화를 통해 불교를 전하고 특히 차문화와 문학에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남기셨다. 오늘 이곳 황룡사는 보혜 스님의 모든 역량이 자연스럽게 녹아 힐링도량으로 우뚝 자리할 수 있는 것 같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황룡사 주지 보혜 스님은 “정말 우연히 만난 인연이 이어져 불사를 시작했고 이렇게 개원법회를 열게 됐다”며 “평소 명상과 다도에 관심이 많았고 불교 차문화를 위해 일본과 교류도 해왔는데 앞으로 본격적인 문화교류 요충지로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대마도 주민들도 반기고 있어 황룡사 개원은 진심으로 운명처럼 느껴질 정도로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황룡사는 대마도 북부 히타카츠항 인근 이즈미(泉) 마을에 위치한다. 대마도의 대주요(對州窯)로 추측되는 중요 지역으로 2018년 한국인이 매입해 보혜 스님의 문화포교 원력에 동참하며 보시했다. 대주요는 대마도의 도요지로서 조선의 다완(茶碗) 제작 요청과 관리를 담당한 기관을 의미한다. 임진왜란 후 대마도는 각종 다완을 조선에 요청했고 부산요(釜山窯)의 왜관을 통해 수출된 다완을 관리한 곳이다. 현재도 황룡사에는 전통 다완을 굽는 가마가 있으며 도자기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 백토가 나오는 지형이다.

앞으로 황룡사는 본격적인 불교 및 선명상, 차문화를 위해 체험을 강조하는 명상문화학교를 개원할 예정이다. 또 국제차문화 축제를 열어 문화를 교류하고 갤러리를 개관해 예술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 장산 대원각사 반려동물 무료천도재

8월 25일 경내 대웅전서

반려동물의 평안을 위하고 반려인을 위로하는 ‘반려동물 무료합동천도재’가 열렸다.

부산 해운대 장산 대원각사(주지 안도 스님)는 8월 25일 대웅전에서 ‘제1회 반려동물 무료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식전행사로 부산불교환경연대 중창단의 ‘아름다운 인연’ 음성공양과 클라리넷 ‘인연’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이어진 반려동물 천도재는 고양이 50마리와 개 70마리를 위한 축원과 아미타경 독송이 있었다.

대원각사 주지 안도 스님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모든 만물 만생이 다 평등하다. 사람만이 고귀한 것이 아니고 짐승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나 모두 다 인간들과 동등하고 평등한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마하사, 위안부 여성독립군 추모재

8월 23~24일 민주공원 일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천년고찰 부산 마하사(주지 정산 스님)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여성독립군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2024 아시아생명평화문화축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8월 23일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열림굿으로 길놀이, 지신밟기 등이 진행됐으며 8월 24일 행사는 부산 마하사에서 일본군위안부 천도재, 생명평화콘서트, 은빛탈춤한마당이 진행됐다. 〈사진〉 이도경 부산지사장



“자살·교통사고 없는 부산 만들겠습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 화엄승가회
자살 ·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가 8월 25일 부산 자유회관에서 ‘제7회 자살 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을 개최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스님)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 스님)가 8월 25일 부산 자유회관에서 ‘제7회 자살·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을 개최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는 매년 자살을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막아 살기좋은 부산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위령대재로 시작했으며 ‘경로 효(孝) 대잔치’를 열어 지역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진행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삼귀의 및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내빈소개 △참여단체 소개 △헌화 △대회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작은 관심의 표현이 자살 예방의 시작이라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5030 속도 지키기와 교통사고 운전자 안전 수칙이 적힌 안내장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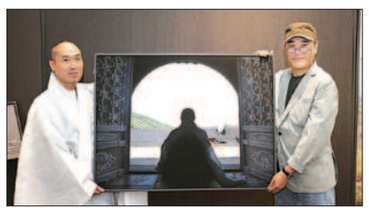
학장 범혜 스님은 “자살은 악업을 지어 괴로움을 받게 되는 시작일 뿐이다.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고 선한 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새겨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부산의 거리에 교통사고가 줄고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살이 없는 부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부처님의 사무량심”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문진우 작가, 범어사 작품사진 기증

8월 27일 작품 기증식 개최



문진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작품 사진 1000여 점을 기증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은 8월 27일 박물관에서 ‘문진우 작가 사진 기증식’을 개최했다.〈사진〉

문진우 작가는 지난 6월 범어사 성보박물관 기획 사진전 ‘금정산 빛그리메’에서 금정산과 범어사를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해 일부 작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전시를 인연으로 문진우 작가는 전시 사진을 비롯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촬영한 사진 1000여 점을 기증했다. 기증받은 사진은 범어사와 부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전시 및 교육, 연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관장 정오 스님은 “문진우 작가가 촬영한 범어사와 금정산 사진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랜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을 통해 남기신 작품이며, 작가에게 작품은 자식과도 같은 의미이다. 부산 시민들과 공유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진우 작가는 “작품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저의 작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를 위해 활용된다는 것이 진심으로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 1기 개강

불교 의식 체계적 교육
25년 1월까지 매주 강의

성낙두 경남지사장


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은 8월 26일 경남교구 종무원사 3층 법당에서 제1기 염불교육원 개강식을 봉행했다.

불전 상용의식과 전통의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태고종 염불교육원 1기'가 개강했다.

태고종 경남교구 염불교육원(교육원장 환명 스님)은 8월 26일 태고종 경남교구(종무원장 황봉 스님) 종무원사 3층 법당에서 제1기 염불교육원 개강식을 봉행했다.

'태고종 염불교육원 1기'는 각종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불교의 혜명을 잇고 불법 홍포의 일익을 담당할 전문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불교 전통의식(범패) 보존과 전승, 현대화를 통한 불교문화 창달과 보급에 기여한다.

염불교육원 강의는 기초반, 전문반으로 나뉘어 올해 8월 26일부터 2025년 1월 21일까지 진행한다. 기초반은 매주 월요일, 전문반은 매주 화요일 강의를 듣는다.

전문반은 경남교구 교육원장 환명 스님이 강사로 나서 영남범패 전통의식, 다비식, 시다림과 49재 등 재의식, 점안의식, 불교사물에 대한 의식을 집중 강의한다. 수료식 전에는 선암사 전통의식 1박 2일 체험도 계획 중이다.

교육원장 환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올 만큼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해야 그것이 좋은 의식이 된다" 며 "성심 성의껏 지도해서 바른 염불을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장 황봉 스님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첫 단추를 잘 끼우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교구 종무원 집행부는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마곡사 약효 대종사 96주기 추모 다례재

8월 26일 경내 대광보전서



마곡사가 근대 불화의 한 획을 그은 약효 대종사를 추모하는 다례재를 봉행하고 유훈을 기렸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가 8월 26일 경내 대광보전에서 근대불화 '남방화소'의 '계룡산화파'를 구축한 약효 대종사 96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다례재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마곡사 총무국장 원묵 스님과 교구 소임자 스님을 비롯해 약효 대종사의 맥을 잇는 병진 스님, 불모 전연호 일섭문도회 이사장와 문도회가 참석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금어원 건립이 지연되고 있지만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며 "개관에 맞추어 전시할 수 있도록 스님의 작품을 모으는 데 문도와 후학 여러분이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금호당 약효 대종사는 마곡사를 중심으로 근세 불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계룡산화파'를 만들어 후학을 양성에 매진하고 1928년 세수 83세로 입적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서산 보원사, 무차평등 수륙대재 입재식

8월 24일 보원사 경내서



서산 보원사(주지 단경 스님)는 8월 24일 경내에서 '보원사 무차평등 수륙대재' 입재식을 봉행했다.〈사진〉

수륙재는 영가천도, 수명장수, 질병구제, 수상안전만이 아니라 호국영령들과 천지를 떠도는 고혼들을 위하여 올리는 국가 행사이다. 보원사가 소장 중인 16~17세기 목판에는 수륙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신수륙무차재문을 기반으로 치뤄진 입재식은 온 법계 성범(聖凡)을 초청하는 △도량건립의식에 이어 △사자단의식 △오로단의식 △영혼식 △관욕식 △상단권공과화엄의식으로 진행됐다.

총 8회로 진행되는 수륙재는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10월 12일 회향까지 이어진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소통·어울림' 가야명상문화축제 성료

8월 25일 김해문화의전당서
김수로 · 허황후 인연 예술화

명상 문화 선양을 위해 열리는 가야명상문화축제가 올해 8회째를 맞아 개최됐다.

(사)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 스님)은 8월 25일 김해 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소통과 어울림이 있는 아름다운 인연'을 주제로 가야명상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축제는 △1부 명상의 소리 △2부 천연인연 화혼-Propose 주제로 진행됐다.

1부의 1막에서는 봄눈별, 김미정, 최가영이 출연해 가야의 혼과 우리의 혼이 어떻게 얼개를 이루고 있는지 더듬어보고 2막에서는 미타선원 하림 스님의 명상 강의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아름다운 인연을 공연으로 선보였다. 두 인연의 프로포즈와 화혼을 오케스트라에 맞춰 여성합창, 남녀독창, 남성중창, 혼성중창, 혼성합창 등으로 공연했다. 춤과 낭송, 스님의 성혼선언문 낭독, 영상, 음향 등이 추가돼 공연의 완성도를 더했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명상이란 마음을 고요히 하여 본래 가진 나의 보배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현대인의 일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김해 시민과 모든 국민이 더욱 행복해지고 가야의 문화와 예술혼이 선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가야문화진흥원은 8월 25일 김해 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가야명상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사찰음식, 불교·이슬람·기독교 잇다

8월 22일 사찰 경내 약사전서
파순단대, 평택대 관계자 초청
적문 스님 사찰음식 만찬 진행

평택 수도사가 사찰음식으로 종교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평택 수도사(주지 적문 스님)는 8월 22일 경내 약사전에서 인도네시아 파순단대 아자르 아판디(Prof. Dr Haji Azhar Affandi)총장 일행과 정장선 평택시장, 기독교 대학인 평택대 부총장 및 관계자를 초청해 사찰음식 명장 적문 스님이 직접 조리한 방한 환영 만찬을 진행했다.

이번 환영 만찬은 양국 대학 간 MOU 체결과 함께 진행된 '적문 스님의 환영 만찬'으로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종교를 넘어 화합하는 자리가 됐다.

적문 스님은 "이슬람교에서 금기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음식이야말로 종교화합에 어울리는 우리의 음식문화이자 평화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아자르 아판디 총장은 "오늘 이 자리가 세계적인 대승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사원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와 불교 그리고 기독교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 아름다운 광경이다"며 "사찰음식 명장인 적문 스님이 손수 마련한 음식을 통해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평택 수도사는 8월 22일 파순단대 · 평택대 관계자를 초청해 사찰음식 만찬을 진행했다.

마하위하라 창건 10주년 기념법회

8월 25일 유원대 대강당서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가 창건 1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아산 스리랑카 사찰 마하위하라(주지 담마끼띠 스님)가 8월 25일 유원대 대강당에서 창건 1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기념 법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하고 스리랑카 독립 텔레비전 방송(ITN)이 본국에서 방송할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마하위하라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마하위하라 사찰이 교민들의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념법회는 불교 정신과 박사 삿다지와 스님, 스리왈뜨느 정신과 의사, 수따 음악 치유사, 하싼다 정신과 박사 등을 초청해 한국에 거주하는 25000여 명의 스리랑카인들의 자살, 도박, 음주 등 정신적 고통을 상담하는 '심리치유 토크쇼'를 진행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러시아 군법사, 우크라이나戰 불자장병 지원

박영빈 객원기자

지난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 불교공동체 안에서 전쟁을 둘러싸고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1일 자유 기고매체인 '글로벌 보이스'는 러시아 현지 불교계의 현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러시아 불자들은 대부분 티베트 불교를 믿으며 상당수가 몽골계 주민들이다. 이들의 상당수는 부랴트, 투바, 칼미키야의 세 러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러시아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부랴트와 칼미키야 당국은 2022년 비상 징집을 가혹하게 실시했습니다. 부랴트 현지의 활동가에 따르면 2022년 9월 21일부터 3일 동안 약 7000명의 징집대상자가 부랴트 군입대 사무실로 끌려갔고, 칼미키야는 러시아에서 예비군 동원 할당량을 초과한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라고 전했다.

현재 러시아 군에서는 부랴트 출신의 바이르 바토문쿠예프 스님이 유일한 공식 군법사로 전선의 장병 불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바토문쿠예프 스님은 "나는 장병들의 신앙을 강화하고, 복잡한 영적인 질문에 답하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임무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고 스스로의 임무에 대해 밝혔다.

러시아군, 야전에 사찰 설치해
장병 신앙 강화·조국 수호 임무
전쟁 속에서도 평화 반전 주장
불교적 가치 대한 고민 갈등도



야전에서 불자장병들을 위해 기원하는 바토문쿠예프 스님. 사진출처=글로벌 보이스

특히 지난해 겨울 러시아군은 전선에 2개의 야전 종교시설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한 곳은 러시아 정교회 성당, 다른 한 곳은 불교 사찰로 현재 전선에 불자 장병이 상당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 러시아 불교승가의 대표자인 담바 아유셰프 스님은 "전통적으로 부랴트 족은 그들의 거주지에 사찰로 지정된 게르가 철수하지 않는 한 전장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며 야전에 세워진 사찰이 불자 장병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전쟁 속에 평화와 반전이라는 불교적 가치를 주장하는 불교지도자들과 불자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2022년 미국으로 망명한 부랴트 쿠렌다찬 사원의 방장 발단 바자로프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속에 전쟁은 들어있지 않다. 전쟁은 윤회의 가장 폭력적인 표현이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이를 돕는 모든 것은 악업"이라고 강조했다.

칼미키야 블교도 협회장이었던 텔로 툴쿠 린포체는 개전 직후 "정의는 우크라이나에 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와 국토, 진실과 헌법, 그들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반격을 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성명을 냈다. 몇 달 후 린포체는 협회장직을 사임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칼미키야 사람들과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자비와 사랑, 비폭력에 대한 용기와 회복, 헌신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야전에 있는 불자 장병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부랴트 출신의 한 장병은 "전선에 나오기 직전 스님들이 우리 캠프를 방문했다. 스님들은 우리의 안전을 기원해 주시면서도 우크라이나 군인을 보면 그 어떠한 분노나 살의를 느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들이 우리의 총에 맞으면 기뻐하지 말고 연민을 가지라고 말했다. 그것이 전장의 군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불교적 가치기 때문이다."

야전에서 불자 장병들을 지원하는 부랴트 출신의 올렉 남질로프 스님은 "이제 평범한 불자들은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나라의 필요에 의해 전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출가자인 내가 돕지 않고 등을 돌린다면, 그들이 악업만을 쌓을 것이라 말한다면, 그것이 출가자의 본분인가?"라고 깊은 고민과 슬픔을 내비쳤다.

보이지 않는 감마파로 염불 들어요

日 사찰, 감마파 스피커로 예불
인지 개선…고령자 치매 예방도



소리를 감마파로 변환시켜주는 스피커. 사진출처=워커플러스

40헤르츠(Hz)의 감마파를 이용한 알츠하이머(치매) 치료가 최근 주목받는 가운데, 일본의 한 사찰이 음성을 감마파로 변환하는 스피커를 예불과 법회에 이용해 화제다. 일본의 '워커 플러스'는 감마파 스피커를 도입한 도쿄의 신미츠인(真密院)에 대해 보도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에 소재한 사찰 신미츠인은 진언종에 소속된 사찰로 오래전부터 지역에선 '타마가와(玉川)의 대사님'이라는 별명으로 친숙한 사찰이다. 특히 이 사찰에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영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지에서 많은 참배객들이 찾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치매 환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수는 약 700만명(유병률 약 20%), 즉 5명 중 1명 정도가 치매환자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신미츠인 측은 "정부발표나 뉴스 등으로 고령자의 치매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치매예방 기원을 신청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신미츠인은 이러한 참배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찰 내에서 예불과 법회 시 방송에 사용하는 스피커를 감마파로 변조하여 출력하는 특수 스피커로 교체했다.

감마파는 40 헤르츠의 진동으로 울리는 주파수로 높은 수준의 인지 활동과 정서 처리를 반영하는 뇌파에 해당한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감마파에 노출된 치매환자들의 치매 증상이 완화 및 개선된 것이 밝혀지면서 실제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신미츠인은 지난 입춘기도를 기점으로 법당내부의 스피커를 감마파 스피커로 교체했다. 또 점차로 경내에 다른 스피커들도 감마파 스피커로 교체하고 있다. 일본 불교계에서 경내 방송 스피커를 감마파 스피커로 교체한 것은 신미츠인이 최초다.

신미츠인의 주지 신포 류겐 스님은 스피커 도입에 대해서 "감마파의 소리가 인지기능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곤 매우 놀랐다. 눈치 채지 못하게 다가오는 치매라는 불안을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부처님의 자비하신 명훈가피와 동일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사찰의 유명한 영험인 치매예방과 감마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도입이라 여겼다"고 도입을 결정한 계기를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120년 된 마우이 日 사찰, 침식에 존폐 위협

해수면 상승·파도로 침식 가속화
흰개미떼 습격으로 구조물 부식도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일본 불교 묘지와 사원이 바다의 침식 작용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해있다.

하와이주에서 운영되는 독립적인 비영리 뉴스 기관인 시빌빗(Civil Beat)은 "영원한 안식의 장소로 알려진 마우이 북쪽 해안의 한 젠 불교 묘지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바다와 싸우고 있다"며 "무자비한 파도에 의해 묘지를 지탱하고 있는 충적 절벽이 침식되어 여러 개의 무덤이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매체는 "해안 인근에 위치한 파이아 만토쿠지 소토 미션도 비슷한 운명에 처해 있다"며 "1906년에 일본 이민자 노동자들을 위해 세워진 이 해변 사원과 관련된 건물들은 침식 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다와 인접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찰의 건물들은 패브릭으로 덮인 모래가 채워진 상자들, 즉 지반 보강용 용기들로 둘러싸여 있다. 침식 작용과 해수면 상승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흰개미떼의 습격까지 더해지며 사찰 구조물의 부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원은 앞서 2018년 한 엔지니어링 회사를 고용해 침식을 막을 방법을 고안했으나 기후적 요인을 막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전해진다.



바다의 침식 작용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큰 위기에 처한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의 일본 불교 묘지와 사원. 사진제공=시빌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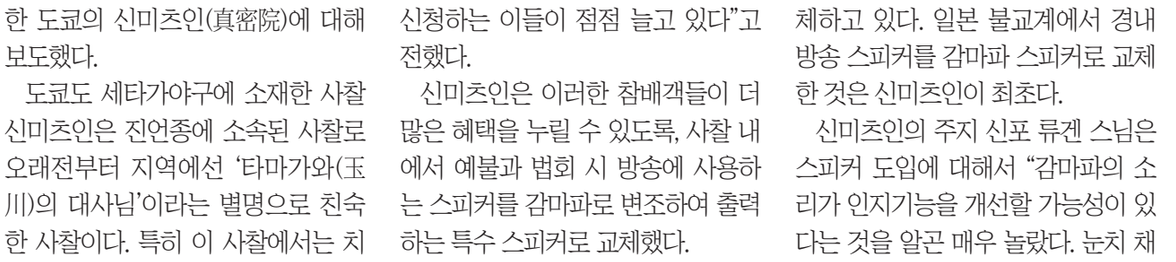
사원 관계자는 "침식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흰개미가 사원을 망가트리고 있다. 이동할 경우엔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며 수백 개의 묘지를 내륙으로 옮기는 것도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원은 현재 해변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기금을 모금 중이다. 사원 관계자는 "해변을 복구하고 유지하는 데 수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토쿠지는 지난 세기 동안 카운티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모래를 채굴하였고, 1946년 쓰나미로 인해 더 많은 모래를 잃었다"며 "현재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여방재난관리청(FEMA)에도 원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는 비단 북쪽 해안뿐만 아니다. 해수면 상승과 해안 침식으로 인해 하와이 제도 전역의 해안가 건물들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시빌빗에 따르면 하와이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최소 13마일의 해변이 사라졌으며, 70%의 해변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마우이는 해안 침식이 다른 하와이 섬들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대학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오아후의 해변 중 40%가 세기 중반까지 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 및 카운티 관리들에게 해안선을 더 이상 강화하지 말고 주거 시설 등을 내륙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식약처에서 인정한 의료기기법 제2조
특허등록
의료기기 근적외선 침대
피부 피하층까지 침투하여 온열효과가 뛰어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현재 세계 각국 의료계의 질병치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숯가마의 열기가 고스란이 녹아든
숯(탄소) 침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원활, 각종중금속배출
- 통증완화(신경통,관절통,견통예방)
- 숙면(불면증,피로회복,좌골신경통)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저혈압),
- 암예방(온열에의한 악성종양의 사멸)
- 새집증후군(포름알데히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온열요법 건강매트·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
(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 20만원

그린에너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수덕사 유·무형 문화유산 디지털로 구현

동국대 불교학술원 · 수덕사
8월 28일 업무협약 체결
역사 · 인물 · 가람 · 신행 주제
한국불교문화포털서 제공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8월 28일 동국대 충무로관 불교학술원장실에서 열린 '디지털 사지(寺誌)-덕숭산 수덕사(德崇山 修德寺)'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가 보유한 유·무형 문화유산이 디지털로 구현된다. 현재까지 연구·보고된 수덕사 관련 자료를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제작, 제공해 한국불교 문화콘텐츠 개발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8월 28일 동국대 충무로관 불교학술원장실에서 '디지털 사지(寺誌)-덕숭산 수덕사(德崇山 修德寺)'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과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수덕사 행사기획단장), 수덕사 재무국장 현중 스님, 김종욱 K-Buddhism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단(단장 김종욱 동국대 교수, 이하 사업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한국불교문화포털(buddhaland.dongguk.edu)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사지' 제작·탑재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사지'는 전통적으로 각 사찰에서 간직한 역사와 유·무형 문화유산, 기록유산 등을 취합해 책자 형태로 간행하던 '사지'를 디지털로 통합 구현한 것이다. 지리정보를 기반한 플랫폼 한국불교문화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불교 문화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문화유산 전승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사업단은 연간 1~2개 전통사찰을 선정해 해당 사찰의 '디지털 사지'를 제작해 공개하고 있다. 2022년 '디지털 사지-지리산 화엄사'를 구축해 공개했고, 2023년 '디지털 사지-팔공산 은해사'를 제작해 탑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는 '디지털 사지-덕숭산 수덕사' 제작·탑재를 목표로 한다. 수덕사가 소장한 자료를 총괄해 '역사' '인물' '가람' '신행'을 주제로 체계적으로 분류, 정제해 디지털화할 방침이다. 각 세부 정보에는 해설을 추가하고, 관련 이미지·영상·문서·웹사이트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종합수행도량으로서 덕숭총림의 특수성을 살피고, 근현대기 수덕사를 거쳐간 문화계 인물들의 행적과 현재 수덕사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전시시설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한국 불교문화에서 수덕사가 가지는 위상을 조망한다. 또한 중요 내용은 쉬운 한글 문장으로 작성해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사지'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게다가 향후 새롭게 생산될 자료는 수덕사에서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도록 성장형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정묵 스님은 "이번 '디지털 사지-덕숭산 수덕사' 제작은 대중이 쉽게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사찰의 근현대 역사를 접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찰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첨단 방식으로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은 "수덕사의 역사와 종합수행도량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문화적 역량을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정리하고 대중에게 소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한국불교문화포털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욱 사업단장도 "'디지털 사지-덕숭산 수덕사'는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근역성보관, 선미술관, 만공기념관, 한국고건축박물관 등 다양한 전시시설을 갖춘 가람과 역사적 인물 소개에 중점을 둬 덕숭총림 수덕사의 면모를 드러낼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 참가단체 모집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주최
노래 · 악기 · 춤 등 부문 나눠
9월 2~14일, 이메일로 접수
10팀에 총 700만원 지원금

불교문화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기는 축제의 장에서 예술적 끼와 열정을 발산할 불교문화 동아리를 모집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최하고 불교문화대전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불교문화대전-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에서 참가단체 모집 공고에 나섰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신행 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불교문화 예술인을 발굴·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에서는 비전문 불교문화 동아리를 대상으로 경연대회를 실시, 우수 동아리에 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노래, 악기 연주, 춤, 연희공연으로 부문을 나눠 진행되며, 사찰, 종립학교, 대학 내 불교학생회, 불교단체에서 추천받은 비전문 불교문화 동아리 또는 소모임이 참가할 수 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등 연령은 무관하다. 다만 합창단 등 전문단체의 지원은 제외한다.

참가 신청은 9월 2일부터 14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추천서, 동아리 소개서를 준비해 이메일(maze@buddhism.or.kr)로 제출하면 된다.

예선 심사는 9월 21일에 진행되며, 서류심사와 유선 인터뷰를 거쳐 본선 진출팀 10팀을 선정한다. 본선 진출팀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본선은 10월 19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본선 진출 단체에는 상장과 동아리 활동 지원금 총 7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불교문화대전 추진위는 "올해 처음 전국의 사찰, 종립학교, 불교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불교문화 동아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내년부터는 '불교문화 동아리 한마당'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정착·운영해 불교계 신행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이끌고, 문화 포교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불교문화대전 추진위원회(02-929-2183)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설치미술가 선진 스님, 개인전 '지금 여기'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 인사동 선유담 카페서



설치미술가로 활동하는 대구 보현암 주지 선진 스님〈사진〉이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 인사동 선유담 카페에서 14번째 개인전 '지금 여기(即時現今)'를 개최한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현대인들에게 참된 자신의 본성을 일깨워 내면의 평화와 자유로움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본래 면목을 되찾고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가 담긴 '무봉탑' 등 설치 작품과 다구 그림에 진언을 새겨 몸과 마음의 평안을 염원하는 그림 총 36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회 개막 당일 오후 3시에는 '선명상 현실 수행법'을 주제로 선원 수좌 스님(현웅 스님, 지범 스님, 지상 스님, 상운 스님)들과 함께하는 법담회가 열린다. 특히 관객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하기 위해 카페에서 전시를 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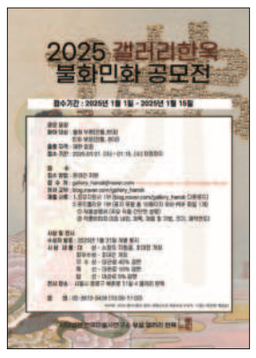
선진 스님은 "현대사회는 놀라운 경제 기술의 발전으로 편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른 형태의 불평등과 정신적 공허감, 소외감, 분노, 우울, 불안 등 여러 정신적 장애를 증가시킨다"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영원한 지복(至福)과 행복은 생각의 감옥으로 벗어나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데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지금 이 순간, 현존에 거(居)할 때 가상의 분리된 자아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자유로움을 얻는다"며 "우리의 삶을 괴로움으로 얼룩지게 하는 마음의 세계에서 현재에 일어나는 현상을 매 순간 바른 통찰로 에고와 무의식의 속박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갤러리 한옥, 제4회 불화·민화 공모전 개최

신진 작가 발굴 · 양성 위해
25년 1월 1~15일까지 접수



(사)한국미술사연구소 부설 갤러리 한옥이 제4회 불화·민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불교미술과 민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신진 불화 및 민화 작가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모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품개요서, 작품이미지가 담긴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이메일(gallery_hanok@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자기소개서에는 연락처, 주요 학력, 주요 전시 경력을 소개한다. 작품개요서에는 작가노트와 주요 작품 설명을 담으면 된다. 작품 이미지는 5점 내외로 작가명, 제목, 재료 및 기법, 크기, 제작연도를 기입해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표지 포함 총 10페이지 이하의 PDF 파일로 만들어야 하고, 10MB를 넘지 않아야 한다.

수상자에게는 갤러리 한옥 전시 기회가 부여된다. 전시는 수상자 발표 후 갤러리 내부 일정에 맞춰 수상 1년 이내에 진행한다. 대상 수상자는 초대전시 기회와 전시지원금이 지급된다. 최우수상에게는 초대전시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상과 특선, 입선 수상자에게는 전시대관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갤러리 한옥은 "갤러리 한옥은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갤러리로, 아름답고 아담한 공간을 자랑하는 한편 귀위있는 작가와 교수들의 전시회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훌륭한 불교미술과 민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신진 불화 및 민화 작가들을 육성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 결과는 1월 31일에 개별로 통지한다. 문의 사항은 갤러리 한옥(02-3673-3426)으로 연락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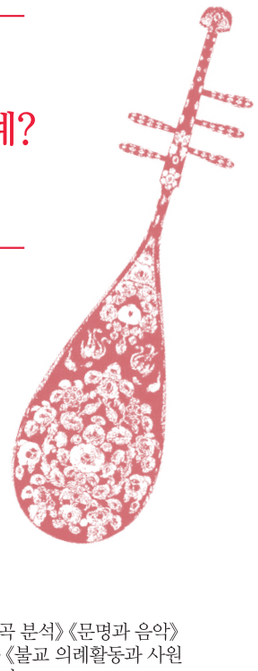
김내영 기자

K-팝에는 불교음악이 있다?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음악 인류학



코리안 떼창의 진원지는 사찰 악가무일까?
한국의 예수재와 이집트의 사후 심판은 어떤 관계?
염주로 꿰어보는 수능 금지곡과 수피 춤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종교음악,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들려주는 불교음악을 통해
불교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느낄 수 있다.



글 윤소희 | 400쪽 | 38,000원

윤소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음악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우교수로 있으며 현재는 한국불교음악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저서는《국악 창작곡 분석》《문명과 음악》《세계 불교음악 순례》《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한·중 불교의례와 범패》 등이 있다. 연구논문《팔리어 송경율조에 관한 연구》《범어범패의 율적 특징과 의례 기능》《불교 의례활동과 사원경제》《삼국유사의 음악과 악기》《티벳 참 의례와 몸짓 만다라》《보로부두르 주악도와 한국의 불교 악가무》《천수다라니 범문원리와 한·중·일 율조 비교》 외 다수가 있다.

차(茶)와 선(禪)은 하나다!
고졸한 다실에서 깨달음을 얻다

세상에 차를 마시는 사람은 많지만
도(道)를 모르는 사람은 차에 먹힌다.
초암다실의 미학적 구조를 통해
선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저자 후루타 쇼킨, 역자 이현옥 | 256쪽 | 22,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7~9/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봉암사동안거일기	산강 대혜 스님	불교신문사
2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부처님의가르침불자의실천	조계종출판사	조계종출판사
3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8	불멸(1)영원한지금의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4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9	마음챙김과자비:자비로운마음훈련	폴 길버트,초덴 공저	학지사
5	부처님의생애(종단본)	교육원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10	중국불교(불교입문총서7)	계환 지음	민족사

책세상

“기억해요 지금 그대가 가장 소중함을”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
주석 스님 지음
담앤북스
1만6000원



주석 스님이 8월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주석 스님이 전하는 다정한 위로들
격려 메시지 담은 산문, 名詩 담아
자존감 높이는 스님의 一句들 눈길
오는 9월 5일 쿠무다서 북콘서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오늘 잘 살아내는 사람만이 기도할 자격이 있다.”(138쪽)

쿠무다문화재단 이사장 주석 스님이 8월 27일 열린 출판기자간담회에서의 현대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일구(一句)다.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그 어떤 대상이든 두 손을 모아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기자신에게 오늘 하루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고찰하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확고한 자기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송정 바닷가에 건립한 복합예술공간 쿠무다에서 문화와 예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주석 스님이 두 번째 산문집 〈그대가 오늘의 중심입니다〉를 펴냈다.

주석 스님은 2020년 첫 산문집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를 선보일 무렵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적지 않은 고통과 실의를 느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님을 일으켜 세운 것은 언어의 힘, 말의 힘이었다. 스님은 따뜻한 말과 글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나아가게 한다는 믿음으로 매일 아침 네이버 밴드에 위로의 편지를 띄웠다. 그 소중한 글을 가려 묶어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1부 ‘사색하는 아침’은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주석 스님이 보내는 맑은 편지다. 짧은 아포리즘을 통해 스님은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잘 살아내기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함을, 타인의 세계를 존중할수록 내 세계도 깊어짐을, 파도 거센 날이 삶이 더욱 깊어지는 날임을, 그리하여 지금 발 딛고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중심임을 일러 준다.

2부 ‘시가 있는 저녁’에는 스님이 직접 고른 명시(名詩)에 마음을 다독이는 짧은 감상을 덧붙인 글을 가려 담았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후회와 아쉬움에 쓸쓸한 마음이 들 즈음, 스님은 평소 아껴 읽던 시 한 편을 들려주며 “그저 눈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숨 쉬는 오늘이 가장 큰 일”이라고 우리를 다독인다. 스님의 이런 다정함에 공감한 시인들은 기꺼이 이 책에 자신의 시를 내어주었다.

서정시의 거장 정호승 시인 역시 “이 책은 시인의 마음을 지니신 부처님께서 주석 스님을 통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쓰신 한 권의 시집이자 명상록”이라는 추천사로 주석 스님의 글에 공감을 표했다.

주석 스님의 글들은 ‘지금 여기’를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이는 첫 번째 산문집과도 동일하다.

“첫 번째 산문집에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상황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고 썼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았죠. 임제 선사께서도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지나간 것에 너무 연연해 살지 말고 온전한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문화포교라는 서원을 세우고 대작 불사를 일궈온 주석 스님은 그간의 활동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듣고 문화를 향유하고 기도할 수 있는 ‘쿠무다’라는 공간은 ‘완전한 깨달음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첫걸음이라는 뜻이다. “저의 아포리즘을 통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임을, 그럼에도 사람임을 세상의 가장 중심인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담은 이 책 역시 ‘완전한 깨달음과 행복’으로 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어 줄 것이다.

한편, 이번 책 출간을 기념해 오는 9월 5일 부산 쿠무다콘서트홀에서 주석 스님 북콘서트와 저자 사인회가 열릴 예정이다.

▲저자 **주석 스님**은?

1988년 법주사 수정암으로 출가해 부산 대운사 주지와 쿠무다문화재단 이사장 등 문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소임을 맡고 있다. 완전한 깨달음과 행복으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되길 서원하며 방송과 인터넷으로 일상의 소중함으로 나누고 있다.

초기불교 출가자, 세속과 인연 단절 않았다



인도불교 사원 생활과 가족관계
쉐인 클라크 지음
임은정 옮김/ 운주사
2만 5000원

현대에서 출가는 세속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소소한 사회적 관계는 물론이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것이야말로 출가의 첫 발, 출가 의지의 발현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이는 부처님 당시부터, 초기불교때부터 내려온 전통으로 여긴다. 과연 그러한가?

〈인도불교 사원 생활과 가족 관계〉를 저술한 쉐인 클라크 캐나다 맥마스터 교수는 “출가 수행자는 결코 세속 가족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현대 서양에서는 크게 2가지 인상에 기초해 인도 승가를 이해했다. 첫째는 중세 기독교 수도회와 관련해 생각했던 개념으로, 둘째는 남방상좌부 불교로 전해져온 전통과 규범적인 문헌에서 보았던 이상적 비구에 대한 환상으로 승가를 이해했다. 현대 서양에서는 이런 개념과 환상으로 승가와 관련한 학문적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이다.

이 책은 초기 승가 관행에서 보이는 부분을 조명하여 ‘길 위의 삶’이 필연적으로 모든 가족과 관계를 끊었다는 주장에 도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인도불교 승가의 본질에 관한 몇 가지 근본적인 가설에 효과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불교 수행자가 되었을 때 반드시 가족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오히려 승가는 수계 후에도 지속해서 가족이나 친족과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관계 등 다양한 유형으로 관계를 유지했다고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쉐인 클라크는 인도불교 법전(비나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무소의 뿔 경’에서와는 달리 인도불교 작가들이 가족적 인연을 포기하기는커녕, 자신의 법적 범위 안에서 비구와 비구니가 가족과 계속 연락을 유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중국어로 보존된 인도불교 율장의 여전히 미지의 영역을 조사한 클라크는 이 책을 통해 가족에 대한 불교 승려들의 태도에 대한 포괄적이고 인도 전역적인 그림을 제공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에서 결혼과 출산은 어떤 의미일까

진흥원 〈불교문화〉 9월호 발간



불교에서는 결혼, 출산을 어떤 의미로 볼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불교문화잡지 월간〈불교문화〉 9월호(통권 제289호)를 발간했다.

불교문화 9월호의 특집 주제는 ‘불교에서는 결혼, 출산을 어떤 의미로 보나’이다. 결혼과 출산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불교에서도 이에 대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 특집은 결혼이 단순히 사회적 제도나 개인의 선택을 넘어, 불교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필원 동국대 WISE캠퍼스 교양융합교육원 부교수는 ‘초기불교에서 보는 결혼과 출산의 의미’를 주제로 부처님은 결혼과 출산을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로 보았음을 전했다.

김원명 한국외국어대 철학과 교수는 ‘대승불교적 관점에서의 결혼과 출산’을 통해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재가자의 결혼과 출산도 연기의 과정으로 해석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결혼과 출산’에서 현대 사회가 ‘기능 분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족의 부차적 기능이 사회제도로 이관되어 가족의 위상이 하락했으며, 사랑과 친밀성의 형식이 변화하여 낮은 출산율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신중일 기자

『화엄경』 주석의 결정판,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초』!
1,200년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 세상에 처음 눈을 뜨다!

『대방광불화엄경 수소연의초』 5차분 12권 출간!

『청량국사화엄경소초淸涼國師華嚴經疏鈔』 1~53



이 시대 화엄종주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엮어내는 화엄의 대서사시!

제22 십무진장품부터 제23 승도솔천궁품, 제24 도솔천궁게찬품, 제25 십회향품까지 12권 출간!

원문의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고지식할 정도의 꼼꼼한 번역!
역대의 「사기」들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상세하고 치밀한 각주!



청량 징관 찬술 / 관허 수진 현토역주 / 신국판양장
(낱권 판매 가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우리 명찰이 지닌 우리 이야기



사찰에 깃든 문학
손종흠 지음
지식의날개
2만2천원

우리나라 명찰 21곳 탐방기
역사 · 문화적 의미 큰 사찰과
그에 깃든 문학의 관계 조명
'사찰'이라는 공간 의미 탐구



감은사지 삼층석탑.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유서 깊은 사찰, 그곳엔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관음보살이 머무는 낙산사, 호랑이 보은으로 세운 희방사, 하늘 물고기의 신통력이 살아 있는 범어사, 문수보살의 성지 월정사 등 우리나라의 고찰에는 신이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책 〈사찰에 깃든 문학〉은 한국 고전문학을 연구해 온 손종흠 교수가 우리나라 명찰 21곳을 탐방하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이다.

사찰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불상을 봉안한 법당, 사리를 모신 불탑, 수행에 정진하는 출가자, 그리고 삼보에 귀의한 신도가 하나로 연결되는 곳이면서 모든 종교활동과 신앙적 결과가 행해지고 나타나는 장소이며, 부처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행한 수행과 설법이 전해지고, 실현되면서 구도자로서의 승려와 태생적으로 불성을 가진 중생이 하나가 되어 서로 이끌면서 불교를 발전시키는 공간이다.

책 〈사찰에 깃든 문학〉에서는 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가 큰 사찰과 그에 깃들어 있는 문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서는 불교와 문학이 만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공간에 스며있는 이야기와 신앙과 관련이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찰의 현장을 연결하여 그것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상징성을 살폈다.

제1장 '역사와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천년 고찰'에서는 민족사나 불교사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가지며, 그에 상응하는 신비한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는 통도사, 해인사, 신륵사, 쌍계사를 조명한다.

제2장 '불교적으로 승화된 남녀의 사랑이야기'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불교적으로 어떻게 승화되어 대중 속으로 들어왔는지 살펴본다. 부석사, 미륵사의 현장과 사연을 통해 조명한다.

제3장 '간절한 구도자의 염원과 부처의 응답'에서는 구도자로서의 출가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와 부처의 도움을 받아 창건된 낙산사, 남백사, 흥륜사에 깃들어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제4장 '고뇌와 자비를 바탕으로 한 불교적 성취'에서는 중생을 향한 구도자의 발원과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굴산사, 희방사, 만어사, 거돈사가 지닌 역사적·문화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제5장 '모성과 효성이 어우러진 전통 사찰의 현장'에서는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는 중심에 자리한 모성과 효성이 불교와 결합하여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불국사, 분황사, 흥효사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제6장 '불국토를 향한 염원과 호국불교의 실현'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통해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드러낸 범어사, 망해사, 월정사, 사천왕사, 감은사에 전해지는 감동적 이야기를 사찰의 현장과 연결하여 이야기한다.

필자는 "이러한 시도는 민족문화가 가지고 있는 예술성과 가치를 재고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콘텐츠를 창조하기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신간의 의미를 밝혔다.

心身에 제대로 된 요가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해



요가호흡, 프라나야마
샤라드찬드라 발레카 지음
왕인순 · 장진아 옮김
담앤북스 /3만원

요가호흡 · 무드라 · 명상 관한
이론과 수련법 등 집대성한 책
고대 가르침에 현대과학 더해
경전 등 바탕으로 과학적 설명

"오늘날 요가는 인도의 위대한 고대 예술, 문화, 과학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요가는 유네스코와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과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략〉 그래서 요가의 원리와 수련법을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신간 〈요가호흡, 프라나야마〉는 카이발리야다마의 조교수인 발레카 박사가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요가호흡과 무드라, 명상에 관한 이론과 수련법을 집대성한 책이다.

카이발리야다마는 요가의 선구자인 스와미 쿠발라야난다가 1917년 설립한 기관으로, 요가의 전통적 가르침을 계승하면서도 요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임상,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요가호흡, 즉 프라나야마는 들숨, 날숨, 들숨과 날숨 사이의 멈춤의 기술이다. 요가호흡은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다양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요가호흡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책은 요가호흡의 기본부터 다양한 호흡법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무드라, 명상 등 폭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요가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고, 요가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저자는 수많은 경전에 담긴 요가의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 단순히 고대의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고, 현대 과학의 시각을 더했다는 것도 이 책의 강점이다. 또한 한국어판에만 특별히 더해진, 메디컬아티스트의 섬세한 일러스트로 인해 복잡한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의학 전문가나 산스크리트어 전문가가 아니어도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표는 내용을 쉽게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책의 1장은 호흡계를 해부학과 생리학을 통해 깊이 설명하고, 2~3장은 요가호흡의 개념과 효과를, 4~6장은 다양한 요가호흡법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7장은 무드라, 8~10장은 삼매에 대해 깊이 설명한다. 11~14장은 명상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이 책은 요가에 관한 '양방향 리뷰'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경전과 지난 100년 동안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연구하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해 기록했던 요가수행자들의 경험적 측면도 추가했다.

지난 세기에 요가자세(asana)는 요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였다. 그래서 많은 저자가 과학적 설명과 실제적인 수련 내용이 담긴 요가자세에 관한 책을 많이 출간해왔다. 책 〈요가호흡, 프라나야마〉는 요가의 원리와 수련법에 대한 관점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요가 부처 장관인 아지트 M 샤란은 추천사에서 "이 책의 목적은 요가지도자, 요가치료사, 의료종사자에게 다양한 요가호흡과 무드라, 명상의 메커니즘과 수련법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책의 역할을 분명히 밝혔다.

저자인 샤라드찬드라 발레카 박사는 아유르베다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석사이다. 카이발리야다마의 고르단다스 세크사리아 요가 및 문화 통합대학(Gordhandas Seksaria College of Yoga& Cultural Synthesis)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희망의 꽃 피우다



10인 10색, 희망의 꽃을 피우다
고명숙, 김영관 외 8명 지음/ 해조음
1만 2000원

장애인불자들의 모임 보리수아래(대표 최명숙)가 장애작가 10명이 참가한 감성작가 공동 시집 '10인 10색, 희망의 꽃을 피우다'를 발간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시집 발간은 장애시인들의 작품교류를 통한 활동 범위 확대와 창작 지원을 통한 장애인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진행됐다. 더불어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해 작가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문예창작 활동 및 작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리수아래는 문학뿐 아니라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을 하는 장애 예술인들이 함께한다. 어려운 현실에서도 치열한 노력과 다양한 활동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참여작가는 고명숙, 김영관, 성인제, 성희철, 이순애, 유재필, 윤정열, 장효성, 최유진, 홍현승 등 뇌병변 장애를 가진 10인의 시인과 수필가다.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장애작가 10명의 신작시 63편과 수필 4편 등 총 67편을 모았다. 자신의 문학에 대한 열정과 꿈을 키워온 장애 작가들의 시와 수필에는 일상 속에서 세상과 나눴던 희망과 행복 메시지가 오롯이 담겼다.

국제문단 발행인 조남선 시인은 평설에서 "작가들은 모두 크고 작은 뇌병변 장애가 있지만 각자마다 순수하며 영이 맑고 밝아 발표된 글의 면면을 살펴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면서 "문학의 힘이 우리의 정서와 감정, 감성을 순화시켜 병들고 고장난 마음을 치유하게 되길 바란다"고 평했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책을 읽는 모든 독자에게 '10인 10색, 희망의 꽃을 피우다'라는 제목과 같이 희망과 사랑, 그리고 위로의 꽃을 선사하리라 기대한다"면서 "보리수아래 작가들 모두도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행복한 작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959-2611

임은호 기자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스님, '광우 스님' 신간 출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불보살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분명 응답하십니다."

삶이 힘겨울 때, 눈앞의 역경에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면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

지극한 기도로 운명을 바꾼 이들의 신비로운 가피담과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의 오묘하고 진실한 힘을 깨닫게 하는
광우 스님의 감동적인 설법!

업장을 소멸해 운명을 바꾸는
광우 스님의 기도 오계명

- 업과 윤회의 가르침을 이해하라
- 기도는 평생의 과업, 호흡하듯 수행하라
- 신심 없는 기도는 빈 껍데기다
- 평소 마음을 잘 써라
- 기도의 시작과 끝에 항상 '보리심'을 일으켜라



광우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
내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신묘한 기도의 힘
광우 지음 | 368쪽 | 20,000원



광우 스님 전국 불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장 '핫'한 수행자. BTN불교TV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세 시즌째 진행하고 있는 스님은 옛이야기를 듣는 듯 재미있고 감동적인 설법, 귀에 쏙쏙 들어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공감의 이야기들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졸리면 자라…내 집착 찾는 게 참선 시작”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스님)는 8월 23~26일까지 동국대 대각전 이해랑예술극장 2층에서 ‘선지식 · 지성인과의 만남’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제5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첫날인 8월 23일 오후 2시부터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저두상수면(명상, 고개를 숙이고 졸고 앉아 있는 것)’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이날 강의 내용을 정리 · 게재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8월 23일 열린 ‘선지식 · 지성인과의 만남’ 초청 강연에서 법문하고 있다. 사진=김민재 기자

정리=신중일 · 김민재 기자

전통적인 대승불교에서 가장 빠르게 깨닫는 방법은 ‘간화선(看話禪)’이다. 선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명상은 영어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라고도 하고 ‘묵상(默想)’이라고도 한다. 명상은 일반인들을 위로, 휴식, 재충전을 위한 것이다. 이를 합쳐서 선명상이라 한다. 선명상은 잘 수행해서 부처가 되어 깨달음에 이를 수도 있고, 삶에서도 고통을 치유하는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주제는 ‘저두상수면(低頭常睡眠)’이다. ‘고개를 숙이고 졸고 앉아 있다’라는 경허 스님(1849~1912)의 게송이다. ‘저두상수면 수외갱무사 수외갱무사 저두상수면(低頭常睡眠 睡外更無事 睡外更無事 低頭常睡眠)’ 고개를 숙이고 항상 졸고 있고 졸고 앉아 있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없다는 뜻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대선사가 왜 이런 게송을 만들었을까. 아주 간단하다. 잘 조는 것이 잘 수행하는 것이다.

대부분 참선하면서 조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 자세와 마음이 집중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는 사람이 오히려 잘 버틴다. 졸지 못하는 사람은 불면증에 빠져 온몸에 피로가 쌓여도 잠을 자지 못한다는 지경에 이른다. 불면증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 아픔, 피로다. 참선하면서 졸지 못하는 사람도 똑같다. 어금니, 잇몸이 모두 헤어질 정도로 8시간, 10시간씩 참선에 정진하면 몸이 녹아난다. 도반의 하소연을 듣고 ‘잘 조는 것이 진짜 도를 잘 닦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잠을 자지 않고 정신이 집중되고 개운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몸을 괴롭히는 수행을 한 달, 석 달 하는 것은 고행 중의 고행이다.

많은 사람의 ‘이익(복지)’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불법(佛法)을 전하는 이유고 목적이다. 더 나아가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천상의 신들까지 포섭된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생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의 수행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참선 명상이다. 〈열반경〉에 따르면 사념처를 수행하라고 가르치셨다. 사념처가 참선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경전에 따르면 두 가지의 ‘화살의 비유’가 있다. 두 번째 화살과 독화살의 비유가 그것이다. 내가 몸이 아프면 마음으로 근심, 걱정, 슬픔을 가지게 된다. 몸이 아픈 것은 첫 번째 화살이다. 이건 누구나 맞을 수 있다. 문제는 두 번째 화살이다. 교통사고가 나거나 뜻밖에 병이 들 수도 있다. 여기에 마음의 병이 겹치는 것이다. 전쟁도 마찬가지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는 이제 중요치 않다. 원인조차 모를 정도로 보복이 거듭될 뿐이다.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계속 맞는 거다. 누구라도 불현듯 오는 사고, 사건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불행을, 사건·사고를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바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다. 내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의 하나가 ‘나한테 닥친 일을 옆집 사람한테 생긴 일처럼 생각하라’이다. 우리 집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면 밉고 원망스럽지만, 옆집 자식 일이면 아무 감정도 들지 않는다. 담담하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혜는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생겨난다. 고통이,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한 번 생긴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독화살에 맞은 사람이 독화살을 쏜 사람, 재료를 알기 전에 치료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또 첫 번째 화살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반복해 맞는 것이다.

경허 선사 게송 ‘저두상수면’
‘잘 조는 게 수행’ 의미 담겨
집착과 惡見이 자신을 얽매어
하루 15분 자신을 관조해보길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쉽게 잊으라는 것이 아니다. 치유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신만 바라보게 됐을 때 ‘나’만큼 세상에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쓰면 두툼한 백과사전이 여러 권 나올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납골당 가면 딱 두 줄 나온다. 이름과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다. 묘비명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성철 스님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법문집을 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남을 바라보는 것과 병행된다. 나는 내가 소중하고 귀하고 비교할 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5000만명 중 한 명이고 지구상 70억명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나에게만 천착하면 다른 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고 명상하고 불교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하기 위함이다. 나에게 생긴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에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그게 바로 고개를 숙이고 항상 졸고 앉아 있는 것이다. 중생들은 항상 좋은 것,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맨다. 망상에 빠져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반 이상이다.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미래를 장담할 수도 없고 집을 살 수도 없다. 옛날에는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직해서 일하게 됐다. 6개월 이상 노는 사람이 없었다. 근데 요즘은 취업 준비를 10년씩 한다. 노력한 만큼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다. 공부도 그렇다. 대학이 다가 아니다. 세계에서 보면 한국의 최고 대학은 10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

삶에 천착되고 자기 시선에만 고정되면 세상을 넓게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도, 세상도 제대로 못 보는 것이다. 한 발자국 물러나서 나, 다른 사람,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게 졸고 앉아 있는 것이다. 하나의 특별한 관점, 시점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오랫동안 템플스테이하면서 참선을 지도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잡념이 일어 참선이 힘들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그게 첫 출발이다. 수많은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가장 나를 힘들고 괴롭고 슬프게 하는지 알게 된다. 그러다 생각이 다 없어지면 경허 스님처럼 도인이 되면 앉아서 졸고 있는 거다.

옛 선사들은 목마르면 차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잤다.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것은 중생의 번뇌, 집착 때문이다. 그걸 찾아내는 게 참선의 첫 출발이다. ‘내가 생각이 많구나’ 하는 때부터 참선이 시작된다. 이어 그 생각들을 하나하나 비춰보면 불필요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저절로 가라앉게 된다.

그런 가운데서 점차 나아진다. 나는 참선·명상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자기를 들여다보게 된다. 참선, 명상, 기도를 한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다. 자기의 상처를 계속 덧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집착하고 애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경전에 보면 사람 몸뚱이를 ‘비단 보자기’라 한다. 그 속에는 변(便)이 들어있다. 자기 속에 변 안 들어 있는 사람 없다. 그런데 이 몸뚱이가 귀한 줄 착각하고 집착한다. 내 삶에 있어 본질을 봐야 한다. 객관화하고 부처님의 안목으로 생각해 여실지견(如實知見) 해야 한다.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볼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다. 조언도 해주고 다른 방법도 설명해 준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일이 닥치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여기서 나, 나의 자식, 내 가족에 대한 집착, 그 집착에서 멈추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야 한다. 그럼 자유로워진다. 졸고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떤 집착과 선입견이 없다. 그저 담담하게 있을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악견(惡見)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 첫째가 선입견이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선입견이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 피부색, 신장, 외모로 차별을 만든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근사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많다. 1960년대 ‘black is beautiful’이라는 표어가 유행했다. 검은 것이 아름답다고 흑인 운동가들이 선입견에 맞서 만든 것이다.

두 번째 악견은 편견이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다. 종교, 인종 등으로 사람을 재단한다. 마지막은 고정관념이다. 잘못된 줄 알면서 바꾸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안 되는 줄 알면서 고집을 피워서 사건·사고를 일으킨다. 때로는 술과 마약,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에 취해서 어리석은 일을 벌인다.

나는 참선을 15분을 하라고 권한다. 가만히 15분 동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길 바란다. 싸우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다. 내 속을 오랫동안 감고 있는 분노, 욕망, 슬픔을 모두 놓아야 한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끌어줘야 한다. 그게 참선하고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앉아서 참선하다가 잠을 잘 자고 있으면 내가 도를 잘 닦고 있다고 생각하라. 하지만 잠이 오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번뇌가 있어 15분조차 앉아 있을 수 없는지 스스로 되짚어봐야 한다. 분노와 원망과 세 가지 악견을 너그럽게 보고 부드럽게 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실천하면 아마 수행이 잘 될 것이다.

1994~2024 창간 30주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불교언론발전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이
2024년 10월 15일 창간 30주년을 맞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4년 10월 16일 창간 특집호를 준비하오니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재가선 거두 이희익, '불교언론인'이었다

주목! 이 논문

종달 이회익의 행적과 언론 활동

선도회를 창립한 종달 이희익 거사는 백봉 김기추 거사와 더불어 근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재가 선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간 종달 이희익에 대해서는 선수행과 수행법에 대한 조명이 이뤄졌을 뿐 '불교언론인'으로서의 면모는 부각되지 못했다. 이상훈 서강대 종교연구원 연구원이 〈보조사상〉 제69집에 '종달 이회익의 행적과 언론활동' 논문을 게재했다. 이를 정리해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신중일 기자

종달(宗達) 이희익(李喜益, 1905~1990) 선사(禪師)는 한국의 대표적인 재가선(在家禪)의 달인이다.

그의 활동 시기는 한국 근현대 격동의 시대였으며, 근대불교에서 현대불교로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에 해당한다. 비구승과 대처승 간 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대중들이 어려워하던 선(禪)을 평생의 전공으로 여기며 선포교(禪布教)에 힘썼으므로 그의 행적을 통해 당시 대중적인 선포교 과정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그의 입적 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도회와 그 문인들의 활동이 언론계의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학술회에서 연구 발표 및 학위논문도 있었지만, 그에게 집중한 학문적 연구는 최근에 이르러 비로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그의 선사상과 수행법에 대한 박사논문 1편과 학술지 논문 2편이 있고, 자서전인 〈인생의 계단〉을 토대로 그의 행적을 다룬 박사논문 1편이 있다.

그간의 연구들은 대부분 선사로서의 면모에 집중하고 있으며, 불교계 언론인으로서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불교 입문

종달의 본관은 전주 이씨이고, 1905년 함경남도 함흥에서 부유한 집안의 12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1990년 서울에서 입적했다. 1917년(12세)에 함흥제일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6년 만에 졸업하고, 1923년(18세)에 함흥상업학교에 입학하여 3년 후 졸업했다.

그 후, 이틀 만에 일본으로 가서 대학 정과에 입학할 수 있는 갑종 중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고자 대판(오사카)의 나니와 상업학교 4학년에 편입(1926년)했다. 그곳을 1년 만에 졸업하고, 법정대학 상과에 입학(1927년, 22세)하였으나 성격에 맞지 않아 1년 만에 그만두고, 곧바로 일본대학 철학과에 입학(1928년, 23세)했다.

일본대학을 졸업한 연도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일본유학 기간이 대판에서 1년, 동경에서 4년이라고 했으므로 오사카 나니와 상업학교 1년 및 동경 법정대학 1년을 제외하면, 동경 일본대학은 3년 동안 수학한 셈이다. 그래서 1930년(25세)까지 일본대학에서 수학하고, 그 다음 해인 1931년(26세)에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귀국 후 함남일보사에 한두 달간 다녔으나 그만두고, 일본대학 시절에 만나 같이 졸업한 조선불교단 후원 유학생인 안종호(동경 대정대학)로부터 불교청년회관 건립모임 참여를 제안받았다. 그는 조선불교단과 아무 관련이 없고 불교도 몰라서 처음에는 사양했으나, 거듭된 요청에 다시는 고향을 찾지 않겠노라 맹세하고 경성으로 올라가 불교청년회에 가입했다. 막상 그 모임에 참가하면서 불교를 만나고는 오히려 바른길에 들어섰다는 느낌이 들었다.

불교와 인연을 맺고 난 후 그의 인생행로는 실존적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종교적 본능에 따랐다. 후일 자서전에서 '선(禪)이 전공'이라고 한 말은 그의 전 인생을 통해 증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나카무라 겐타로(中村健太郎, 1881~1969)가 뒤에서 조선불교단을 지도했다고 하므로 이때 나카무라를 만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나카무라는 〈조선불교〉의 편집인이자 발행인이었다. 조선불교단에서 〈조선불교〉의 폐간이 논의되자 나카무라가 1928년 9월부터 인수하여 사장이 되었다.

조선불교잡지사로부터 일을 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는 1932년(27세) 전후로 추정된다. 자서전에서 "한두 해 하는 동안 잡지 발행에 익숙해졌고"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1934년(29세)에 출가하기 전에 재직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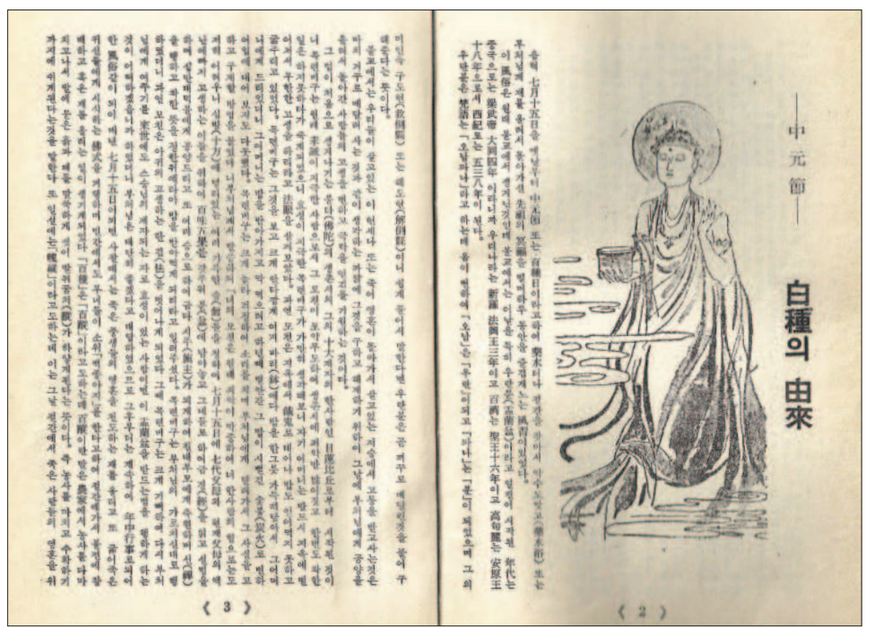
〈조선불교〉에서 잡지 발간을 위한 원고 모집 요청, 발송 등 기본적인 업무를 보다가 나중에는 편집도 배우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때 경험을 해방 후 〈대한불교〉 〈법시〉 〈선문화〉 등의 언론 및 출판 업무에 활용할 수 있었다.

출가

종달을 출가의 길로 이끈 사람은 나카무라였다. 그는 나카무라에 대하여 '선에 조예가 깊은 고사(高士)'라 하였고, "특히 조선 사람 입장에 서서 많이 애쓴 분으로 유명했다"고 기억하였다.

국내에서 나카무라는 조선불교의 부흥을 위해 노력한 일본인으로 평가하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와 다른 견해도 있다.

자서전에는 연도의 표기 없이 그가 27세 되던 해 9월 초순에 화산을 은사로 출가하여 '종달(宗達)'이라는 법명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나이 27세로 보면 1932년 정도로 추정 되지만, 〈조선불교〉제97권 1934년 2월호에 수록된 그의 기고문 '처음으로 참선(參禪)하며'에 따르면, 1월 10일에 경성별원 접심회(接心會)에 처음 입문했고. 자서전에서는 9월 초순경에 출가했다고 하였으므로 1934년(29세) 9월에 출가한 것으로 보인다.



종달 이회익 선사가 운영한 월간 〈법시〉 제11호 중 일부. 종달 노사는 '백종의 유래'를 통해 효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다.



선도회 창립… 재가선 수행 이끌어
비구 측 신문 '대한불교' 창간 주도
13년간 '법시' 발간하며 언론인 활동
첫 禪 잡지 '선문화' 창간 선풍 진작

〈대한불교〉 창간 및 속간

해방 전 종달의 행적은 출가와 수행으로 요약할 수 있고, 해방 후에는 재가선 포교와 불교언론인으로서 활동으로 압축할 수 있다.

1960년 초만 해도 조계종은 비구승과 대처승의 분규로 인해 아직 조직적인 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종달은 일제강점기의 불교에 대하여 "우리 불교계는 대처승으로 변질됐다"는 입장이었으므로 불교정화운동 당시에는 비구 측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비구승 출신의 수행 경험에 따라 선수행을 전문도량에서 청규에 의해 진행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다.

〈대한불교〉 창간의 핵심 인물이었던 청담(靑潭, 1902~1971) 선사와 이미 해방 전에 만났던 인연이 있었던 그는 비구 측의 〈대한불교〉 창간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당시 〈대한불교〉는 비구 측의 의사를 전달하고 결집하는 소통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

그 외에도 많은 자료에서 1960년 창간 당시 종달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증언한다. 〈대한불교〉 창간 후 재정난으로 2개월 정도 중단됐을 때, 고향 선배인 추담(秋潭, 1898~1978) 스님의 소개로 한의사인 김춘강을 만나 〈대한불교〉를 속간(續刊)하기로 했다. 오경후에 따르면, "아울러 오늘날 불교신문의 전신인 대한불교가 경영난으로 폐간될 위기에 처하자, 김춘강·이희익 씨와 함께 정상화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법시〉 창간

종달이 활동한 언론 분야 중 가장 오랫동안 종사한 것은 〈법시〉 간행이었다. 〈무문관〉을 비롯한 여러 저서의 약력에는 '1964년 사단법인 법시사(法施舍) 상무이사 및 월간 〈법시〉 편집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서전에는 그가 법시사에 입사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는 〈법시〉 간행에 필요한 재정 때문에 동분서주하다가 정종원을 만났고, 도와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정종원은 법시사에서 두 번 일했는데, 1957년부터 1961년까지 그리고 1967년 4월부터 입적하기 전 1977년 3월까지 법시사를 이끌었다.

정종원이 종달을 만났을 때는 두 번째 일을 시작할 때였다. 그는 선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염불을 했던 정종원과 〈법시〉의 편집 방향이 다른 점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선불교 관련 기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정종원과 합심하여 〈법시〉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한편, 자서전에는 13년간 법시사에 상무이사로 근무하다가 1976년에 사임했다고 했는데, 10년이라고 말한 부분도 있다. 1975년 7월에는 〈선문화〉 창간에 전념하기 위해 〈법시〉 편집장에서 사임하였지만 이사직은 1976년 7월까지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법시사에서 13년간 근무하면서 법시사 운영의 정상화와 〈법시〉 간행의 초석을 놓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법시〉를 말할 때는 그를 빼놓을 수 없다.

〈선문화〉 창간

법시사를 퇴임한 종달은 〈선문화〉를 1975년 5월호부터 창간해 7월호까지 두 번 발간 후, 1975년 10월호부터는 본격적으로 문공부에 등록한 잡지로 창간했다. 당시 선 관련 잡지의 불모지였던 한국 불교계에 현대 최초의 선(禪)전문 잡지로 알려진 〈선문화〉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선포교의 교두보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창간 초기부터 발간을 책임지기로 한 인쇄소에서 갑자기 못하겠다고 중단하자, 선도회 회원들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17호까지 간행했다. 1976년 6월호까지는 정상적으로 매월 발간했으나, 재정과 건강상 문제로 계속할 수 없어 휴간했다. 1977년 11월부터 다시 계간지로 간행했으나 결국 1979년 3월에 완전히 중단하고 말았다. 비록 〈선문화〉 간행은 일찍 중단됐지만, 고령에도 선포교에 심혈을 기울인 그의 원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1959년부터 1979년까지 20여 년 동안 〈대한불교〉와 〈법시〉 및 〈선문화〉 등을 통해서 불교 언론의 초석을 다졌던 그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은 오직 선풍(禪風)을 일으키고자 한, 평생 원력 때문이었다.

그의 행적 중에서 재가선 포교 외 또 하나의 기둥은 1959년부터 1979년까지 약 20여년간 매진하였던 불교 언론 활동이다. 그의 입장에서는 선포교를 위한 문서포교의 과정이었다. 비록 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를 표방하지만, 문자나 설명 없이는 종지(宗旨)를 전할 수도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이상호
서강대 종교연구원 연구원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중국 실크로드 코스는 서안에서 돈황석굴을 지나서 투루판과 우루무치까지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입니다.
출발일정 : 10월 21일~10월 30일(9박10일)
동참금 | 349만원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 화염산, 고창고성, 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인도, 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순례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동참금 | 290만원~310만원
▶ 10월 20일 출발~10월 29일 도착 (10일 일정)
▶ 11월 17일 출발~11월 26일 도착 (10일 일정)
▶ 12월 5일 출발~12월 15일 도착 (11일 일정)
▶ 1월 4일 출발~ 1월 14일 도착 (11일 일정)
▶ 1월 9일 출발~ 1월 19일 도착 (11일 일정)

특별가
인도 다질링,부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정 : 10월13일~22일(8박10일)
인도 다질링은 세계적인 홍차 산지로 히말라야 칸첸중가(8,586m)가 바라보이는 관광 명소입니다. 다질링으로부터 육로로 불교왕국인 부탄으로 가는 일정은 아름다운 다질링과 부탄을 순례하는 멋진 일정입니다.
일 정 | 인천–델리–다질링–부탄 팀푸–푸나카–파로–델리–인천
동참금 | 439만원

중국 실크로드 돈황석굴 6일
중국 서안관광과 맥적산석굴, 병령사석굴, 돈황석굴등 실크로드 코스에서 중요한 3대 석굴을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10월 13일~18일(5박6일)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양귀비화청지)–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돈황(막고굴,명사산)–서안–인천
동참금 | 259만원

중국 육조단경의 혜능대사를 찾아서 5일
▶광주 육조 혜능대사의 수계 삭발처 광효사
▶혜능대사의 진신이 모셔진 조계산 남화선사
▶육조단경을 설하신 육조대사 설법도량 대감사
▶혜능대사가 사냥꾼들과 지냈던 사회현 육조사
▶육조 혜능대사의 탄생 및 입적도량인 국은사
출발일정 : 11월19일 ~23일
동참금 | 159만원
일 정 | 인천–광주–광효사–소관–남화사–대감사–운문선사–사회시 육조사–조경 칠성암 경구–신흥 국은사–광주–인천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⑰ 논산 관촉사 은진미륵



▶한줄 요약
은진미륵은 국가가 태평하면 몸에서 빛이 나고 난이 있게 되면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손에 쥔 꽃이 색을 잃었다고 전한다. 미륵경전에 의하면 훌륭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이 계율을 잘 지켜 평화로울 때 미륵부처님이 오신다고 한다.

사바세계 들판 바라보는 은진미륵이여!

관촉사 은진미륵을 보았느냐?

충남 논산 사람이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묻는다. "너는 살아생전에 연산 가마솥, 강경 미내다리, 관촉사 은진미륵을 보았느냐?"

연산 가마솥은 개태사(논산시 연산면)가 936년(고려 태조 19) 창건됐을 당시에 사용하던 가마솥이다. 그 솥은 500여 명의 사람이 먹을 밥을 한 번에 지었다는 논산의 명물이다. 강경 미내다리는 1731년(조선 영조 7년)에 민간이 주도하여 놓은 다리다. 개울 이름이 '미내'이므로 '미내다리', 또는 '미나'라는 스님이 공사 감독을 하였으므로 '미나다리'라고 한다. 논산시 채운면에 있어 '채운다리'라고도 한다.

관촉사 은진미륵은 논산시 관촉동에 있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국보)을 말한다. 옛 지명인 은진면에 자리한 관계로 예로부터 은진미륵으로 불리고 있다. 관촉사는 논산에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한 곳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찰이다. 아마 은진미륵의 유명세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은진미륵이라는 이름처럼 미륵보살로 유명하지만, 관음보살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 모양이 특이해서 미륵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관음보살로 보는 것이 정설처럼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대부분 미륵보살로 모셨으며, 지금도 은진미륵으로 알고 있듯이 미륵보살로 각인되어 있다. 옛 기록에는 미륵보살, 관음보살이라 불리는 곳이 각각 있다.

여러 내용에 근거하여 10여 년 전 관촉사에 주지로 부임한 스님이 관음도량으로 사찰의 위상을 바꾸고자 불상을 관음보살로 모시고자 하였다. 그러나 워낙 은진미륵으로 각인된 탓인지 대중들의 호응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관촉사 부처님 앞에는 용화전[미륵불이 계신 법당]이 자리하고 있다. 한편 여러 이견의 흔적 때문인지 현재 관촉사 홈페이지에는 석조미륵보살입상과 석조관음보살입상이라는 이름이 모두 있다.



관촉사 산신각에서 본 은진미륵과 논산들판 전경.

조정의 명으로 1000명 동원 조성
보관은 면류관 왕권 상징 주장도
상처는 나라 흥망성쇠 함께한 상징
자비 · 복덕 안겨준 불보살 자리매김



관촉사 미륵의 이어붙인 보관. 거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다 다친 상처로 불린다.

어린아이의 지혜로 불상을 세우다

관촉사는 논산시 관촉동 반야산 중턱에 자리한다. 반야산은 100m 정도 높이의 나지막한 야산으로 넓은 벌판 가운데 있다. 절 주차장에 다가가면 저만치 산 중턱에 있는 은진미륵을 볼 수 있다. 높이 19m, 둘레 9.2m의 돌로 된 거대한 불상이기 때문이다.

관촉사의 창건 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에 전국 곳곳에 대대적인 불사가 있었다. 이러한 불사는 왕권 강화를 위해 호족 세력의 시대가 끝났음을 각인시키고자 왕명으로 불사가 시작되었다고 추정한다. 관촉사 보살상도 왕명으로 혜명(慧明) 대사가 970년(광종 21년)(혹은 968년) 조성하기 시작하여 1006년(목종 9년)에 완성했다. 이 보살상이 쓰고 있는 보관은 면류관으로써 왕권을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다.

절 주차장 끝에 '반야산 관촉사'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이 있다. 일주문, 천왕문, 명곡루 또는 해탈문을 지나면, 사찰 마당이 펼쳐진다. 마당 오른쪽으로 용화전, 그리고 그 너머로 은진미륵이 잔잔한 미소로 반겨준다. 가까이 가서 미륵보살을 보면, 보살상은 얼굴과 보관이 하나인 머리 부분이 한 돌, 가슴 부분이 한 돌, 허리 아래로 한 돌, 그렇게 세 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모습과 관련하여 은진미륵 조성 과정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1743년(영조 19년)에 건립된 〈관촉사사적비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68년(고려 광종 19년) 사제촌에 사는 한 여인이 산 서북쪽에서 나물을 뜯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갑자기 커다란 바위가 땅속에서 솟아났다. 이상하게 여겨 집으로 돌아와 사위에게 말했다. 사위는 관에 고하였고, 관은 다시 조정에 보고하였다. 백관이 모여 회의를 했다. 그 결과 이는 불상을 조성하라는 조짐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혜명 스님을 중심으로 100여 명의 장인과 함께 970년에 불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솟아난 바위로 허리 아랫부분을 만들고, 가슴과 머리 부분은 그곳에서 12km 떨어진 연산면 고정리 우두촌에 있는 바위로 만들었다. 드디어 1006년(목종 9년)에 불상이 완성되어 1000명을 동원하여 도량으로 운반하였다.

그런데 아랫부분이 워낙 거대하여 그 위로 가슴과 머리 부분을 올릴 방법이 없었다. 스님은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냇가에서 어린아이들이 흙으로 불상을 만드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밑부분을 세운 뒤 모래를 쌓고, 그 위에 가운데 부분을 올려놓고, 다시 모래를 쌓은 후 맨 윗부분을 올려놓았다. 이를 본 스님은 그 방법을 깨달아 불상을 제대로 세울 수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화신으로서 가르침을 준 것이다.

혹시 치우침이 없고, 선입견에 물들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지혜를 강조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어린아이의 놀이를 보고 방법을 깨우친 스님도 대단하다.

나라의 흥망성쇠 속에 있는 은진미륵

왕권 강화를 위해 조성했든지, 아니면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조성했든지, 관음보살로 조성했든지, 아니면 미륵보살로 조성했든지, 관촉사 보살상은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복덕을 안겨주는 불보살님으로 자리했다.

이리하여 이전에는 지방의 작은 사찰에 불과했던 관촉사는 보살상의 불사로 인해 역사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관촉사라는 절 이름도 보살상이 완성된 이후 지어진 이름이다. 그전에는 어떤 이름인지 알 수 없다. 관촉사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다.

불상이 세워지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 불상의 몸을 씻어주었고, 찬란한 서기가 21일 동안 천지에 가득했다. 그리고 불상에서 빛이 나와 사방을 비추었다. 이때 중국에서 지안(智眼) 스님이 그 빛을 쫓아와 예배하고, 그 빛이 촛불의 빛과 같다고 하여 절 이름을 관촉사(灌燭寺)라고 하였다.

보살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관 한쪽에 수리한 흔적이 보인다. 이 나라를 구하다 다친 상처다.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기 위해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였다. 삿갓을 쓴 스님이 얕은 내를 건너듯이 강을 건넜다. 이 광경을 본 거란군은 얕은 곳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물에 뛰어들다가 거의 몰살하였다. 거란군의 장수가 크게 노하여 그 스님을 칼로 치니 갓 한쪽이 떨어져 나갔다. 그 순간 관촉사 은진미륵의 보관 한쪽이 떨어져 나갔다. 그 강을 건너던 스님이 바로 은진미륵이었다. 떨어져 나간 부분은 그나마 산산조각이 나지 않아서 그대로 두었다가 조선 숙종 때에 다시 붙였다.

현재 은진미륵 보관 한쪽 끝에 이어 붙인 자국이 그때의 상처라고 한다. 은진미륵의 상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09년(순종 3년)에 세 명의 일본사람이 불공을 드린다며 관촉사에 묵었다. 그런데 그들은 은진미륵 보관 끝에 놓여 있던 금불상을 모두 훔쳐 가고, 이마에 있는 광명주마저 깨뜨려버렸다. 이때부터 은진미륵은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함께한 분이라서 그런지, 은진미륵은 국가가 태평하면 몸에서 빛이 나고 서기가 허공에 서리며, 난이 있게 되면 온몸에서 땀이 흐르고 손에 쥔 꽃이 색을 잃었다는데. 미륵경전에 의하면, 훌륭한 왕(전륜성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이 계율을 잘 지켜 평화로울 때 미륵부처님이 오신다고 한다. 은진미륵의 몸에서 땀이 나거나 꽃이 색을 잃기보다는 빛이 나고 허공에 서기가 서리는 날이 많기를. 산신각 앞에서 은진미륵과 같은 눈높이로 넓은 들판을 바라보며 그렇게 희망을 품는다.

〈불교학자〉

스님! 나이가 들어가면 염불이
조금씩 힘이 들지요! ..... 이제 2m 떨어져서 작은 염불 소리에도
법당을 감돌고 휘도는 소리가 스님의 귀에 울려 퍼짐으로 염불이 신명 넘치는 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방문 마이크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89만원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79만원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79만원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불 향 : 8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2024년 9월 4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98호 | 15 | 전면광고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버리는 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나니,
이것이 바로 즐거움 가운데서도
최상의 즐거움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110평 • 법당 : 25평 • 요사 60. 주차가 • 매가 : 10억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60평 외 • 요사 : 60평 외 • 매가 : 35억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 채무채권 상담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 넓음
- 가액 : 3억

010-5550-9725
010-4001-8476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강원도 삼척시
- 대지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도청 부근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가액 : 9억 절충

010-9692-57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4길 144-17
- 대지 : 200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전망 좋고 신도 많음.
- 현재 운영 중,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대출 5천 안고 2억 8500만원

010-8643-5235

포교당 임대 안내

- 위치 : 서울 강서구 화곡동
- 까치산 시장과 지하철 입구 인접
- 마당있는 단독주택 방 3개(거실 법당)
- 보증금 : 1000만원/월세 80만원

스님 이민 관계로 몸만 오시면 됩니다. 법당 법구 일체, 냉장고·세탁기 등 모두 보시하고 갑니다

010-5399-1225

사찰(급)안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 4500만원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5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시 와룡면 라소리 야산151번지 (시내 25분, 마을 5분 거리)
- 산내암자도 매매 가능
- 스님 토굴 수행처로 좋음
- 귀촌, 개척 수익성 토지 3000평 : 7500만원(5000평 있음)
- 농작물, 과일나무, 표고버섯 양봉, 더덕, 장뇌삼 재배가능
- 수목장 묘터 활용가능

산내 암자 010-3521-542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쌍계동 321번지
- 대지 : 230평
- 건물 : 법당18평, 뒷편 방1, 창고 요사채20평(방2,거실,부엌,창고) 용왕당, 산신각, 법종, 탑 등
- 이마트 영천점 4분거리
- 가격 : 4억6천

010-5204-8176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대출 8000만원 끼고 6억원

010-6898-9114

사찰(급)안내

-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소재
- 부 지 : 약 50여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40평
- 가 액 : 3억(절충가능)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사찰로 포교지론 적지,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 법 당 : 시설완벽, 최상

010-3190-81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1억 9000만원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확 낮춰서 올립니다.

010-3007-5611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국내외 자비봉사단. 육법공양단. 불교 합창단

생활불교 실천에 잠시의 여유를 갖고 그늘진 곳 중생들에게
힘이되어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 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십니다.

02-733-5665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2024년 9월 4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98호 | 16 | 전면광고

무거운 돌을 연못에 던져 놓고,
'돌아떠올라라 돌아 떠올라라.' 아무리
축원을 한들, 어찌 무거운 돌이
물 위에 떠 오를 수 있으랴.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불교의식(행사대행)

49재, 천도재, 예수재, 점안식 (법문, 바라, 나비무, 법고무)

초대해 주시면 불사 행사 성취에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연암당 덕평
010-6219-4757

기문둔갑 수강 모집

기문둔갑은 1세부터 90세까지 운세를 알 수 있는 것. 첫째 학생 진로 결정시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판검사, 의사, 사업가 등의 사주를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문제, 부부관계, 병고 향방을 알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스님 및 일반인 수강 가능
스님이 직접 강의합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010-3544-9777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한가족처럼 생각하는 공양주 하실 분 구함

백운사

010-6513-4771
010-8640-0108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절마당 닷컴을 오픈했습니다.

절집안의 필요한 종무원 구인구직 및 절부동산 안내와 이름작명을 빠르게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절마당 운영자 합장

www.절마당.com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탈종공고

- 사 찰 명 : 영선사
- 주 소 : 경북 영주시 안정면 일원동 산 4-1
- 주 지 : 원현철(사망) / 자(子) :원형규
- 등록년월일 : 1971년 4월 30일(제09-1400호)

위 사찰과 본인(子)은
수행 종풍이 맞지 않아 귀종에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산사품』 명품 토종꿀

『산사품』 토종꿀은 충북 괴산의 낙영산과 보개산의 사찰주변 청정산중에서 채밀.
『산사품』 토종꿀은 1년에 1회 채밀합니다.
『산사품』은 『산사 품은 명품꿀』이라는 뜻으로 『산사품 한봉원』의 브랜드입니다.





산사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사찰불사 및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사에만 전액 사용됩니다.

산사품 드시고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전국무료배송
- 2024년 8월 26일부터 배송가능합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 받습니다.
-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길 74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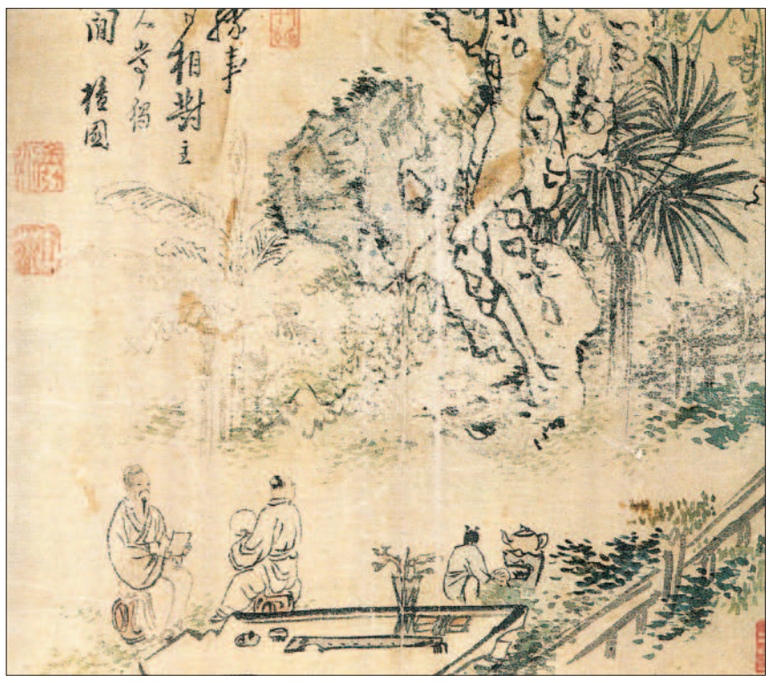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⑰ 상품으로서 茶

“지천 널린 茶 통해 부국강병을”

조선 후기 이덕리(1725~1797)가 지은 〈기다(記茶)〉는 차를 팔아 국익과 백성의 삶에 보탬이 될 정책을 제안했지만, 당시 시대상황에서는 그의 제안이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제안은 실용화되지 못한 건의서에 불과하지만, 최초로 차의 실용론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중국이 차를 수출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오랑캐를 방어하는 기이한 재화로 삼았다는 점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차의 활용에 주목한 그의 〈다설〉과 〈다사〉, 〈다조〉는 차문화사에서 주목할 문헌 자료라 생각한다. 차를 이용한 그의 부국에 대한 열망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간송미술관 소장 김홍도의 ‘전다한화’

조선 후기 이덕리 〈기다〉, 중국 차 수출 제안
유배된 몸이었으나 부국을 위한 충정심 빛나

우리나라는 (차가)울타리나 섬돌 곁에서 자라고 있지만 흙이나 숯처럼 쓸모없는 물건처럼 여기며 그(차) 이름조차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다설〉 한 편을 지어 다사를 아래에 조목별로 나열하여 당국자가 시행해 볼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我東則產於芭籬堦陛 而視若土炭無用之物 并與其名而忘之 故 作茶說一篇 條列茶事于左方 以爲當局者建白措施之地云爾)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18세기 말, 당시의 차 문화는 거의 쇠퇴하여 차를 아는 사람이 드물었던 시기였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차를 통해 나라를 부강하게 하며 오랑캐를 막는 재화로 삼을 만큼 차의 경제적 가치를 국익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천으로 자라는 차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늘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걱정했던 그는 유배된 몸이었지만, 지천에 널려 있는 차를 이용하여 나라와 백성에게 보탬이 되고자 했던 의지를 드러냈으니 그의 충심은 이처럼 빛났다.

결국 그가 제안한 큰 뜻은 나라의 경제력이 넉넉해지면 백성도 힘을 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다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배로 서북지역의 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운반하여 차를 은과 맞바꾸면, 주제의 고급 은으로 만든 그릇과 촛대가 물길을 따라 잇달아 들어와 지역마다 배당될 수 있다. 차를 말과 교환한다면 기주북쪽 지역의 준마와 양마가 성 밖 쓸모없어 놀리는 땅에 가득하고 교외 목장에 넘쳐날 수 있다. 차를 비단과 바꾸면 서촉 지방에서 짠 고운 비단을 사녀들이 나들이옷으로 걸치고 깃발의 천도 바꿀 수 있다. 나라의 재정이 조금 나아지면 백성의 힘이 절로 펴질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앞서 내가 황량한 들판의 구석진 땅에서 절로 피고 지는 평범한 초목을 얻어서 나라에 보탬이 되고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舟輸西北開市場 以之換銀 則朱提鐘燭 可以軟川流 而配地部矣 以之還馬 則驥北之駿良駃騠 可以充外閑 而溢郊牧矣 以之煥錦段 則西蜀之織成綺羅 可以衒士女 而變旋幟矣 國用稍優 而民力自紓 更不消言 而向所云得於荒原隙地 自開自落之閑草木 而可以裨國家裕生民者 殆非過言)

윗글에서 알 수 있듯이 차를 팔아 은으로 교환하여 물자가 풍부해지면 여러 지역으로 좋은 그릇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차를 좋은 말로 바꾸면 말이 넘쳐나 적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차를 활용한 그의 제안은 차로 비단을 교환하면 온 백성이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으며 깃발을 만드는 것에도 기여할 것이라 하였다. 결국 그는 차를 팔아 살림에 필요한 용기와 옷 등 미풍양식에 필요한 물자를 풍족하게 마련하고자 하였고, 말을 길러 국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결국 국가의 경제력이 나아지면 백성의 살림살이도 넉넉해질 것이란 그의 확신은 〈다설〉에서 확인된다. 더구나 지천에 널려있는 차라는 재화를 이용해 국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그의 견해는 탁견이었지만 실천할 수 있는 시대환경이 아니었다. 사람이나 보잘것없는 초목도 그 쓰임에는 때를 얻어야 하는 법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만약에’라는 가정(假定)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차에 대한 건의가 정책으로 채택됐다면 조선 후기 차 문화의 흐름은 상상하지 못할 문화 유형을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차 문화사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문화 형태를 구현했던 시기는 고려시대였다. 차와 청자 다구, 차를 즐기는 계층의 문화 수준 등이 송나라와 비견될 정도로 발전된 차 문화를 구가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에서 경제적 산물로 차를 활용한 사례는 드물다. 다만 왕실 귀족층, 사원의 승려, 문인들의 정신적 향상이나 문예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필요한 정신 음료로 그 가치를 중시했다. 실로 차의 원천적인 진수를 향유했던 시대였던 셈이다. 그러나 동시대의 송나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매개물로 차를 즐기는 한편 차를 활용하여 황실의 경제력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으로 삼았으니 이는 전매 제도인 각다법(차의 세금법)에서 드러난다.

아무튼 이덕리의 〈기다〉는 후일 강진 백운동 이시헌(1803~1860)의 집안에서 발굴되어 세상에 알려졌고, 이를 통해 그의 차 교역에 대한 제안도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그의 〈기다〉에는 식은 차를 마신 후 몸의 변화를 언급한 내용인데, 이는 차를 어떻게 마시는 것이 사람에게 이로운지를 알려주는 정보이다. 바로 그가 막걸리를 몇 잔 마신 후 곁에 냉차가 있는 것을 보고 반잔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목에 가래가 끓어올랐다. 10여 일을 뱉어내고서 겨우 나았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는 현대인의 차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바로 식은 차를 마시면 가래가 생긴다는 점이니 식은 차는 몸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를 준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㉞

1. 다음 중‘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부처님 탄생게의 의미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나 자신만이 제일이라는 독불장군식 의미이다.
② 부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러 왔다는 의미이다.
③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신의 자리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④ 나는 물론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는 인간 자존성의 천명이다.
⑤ 나 자신만이 세상의 고통을 단절시킬 수 있다는 유일신적 표현이다.

해설 :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직역하면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존귀(제일 귀중하다)하다는 말이다. 여기서 나란 부처님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중생)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는 부처님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에, 즉 최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존귀한 것은 사람(중생)이라는 말이다. 그럼으로 독불장군이라든가, 세상을 다스림, 신의 자리, 유일신적 표현은 아니다.

2. 싯다르타 태자의 생모인 마야왕비는 태자를 잉태하고 어떤 내용의 태몽을 꾸었는가?

① 흰색의 호랑이가 마야왕비를 업고 하늘로 날아갔다.
② 여섯 마리의 코끼리가 룸비니 동산에서 놀고 있었다.
③ 북두칠성의 7개 별 중에 하나가 떨어져 마야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왔다.
④ 여섯 개의 이빨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허공에서 내려와 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왔다.
⑤ 싱싱한 초록빛에 비취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공작 한 마리가 마야왕비에게 다가와 예를 갖추고 물러갔다.

해설 : 마야왕비는 여섯 개의 이빨(상아)를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허공에서 내려와 왕비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싯다르타 태자를 잉태하였다. 참고로 태자는 잉태 이후 태어나실 때도 옆구리로 나오신다.

3. 마야왕비는 싯다르타 태자를 출산하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싯다르타 태자는 이모의 손에 의하여 양육되었는데, 그 이모의 이름은?

① 아르주나
② 시하하누
③ 야소다라
④ 마하빠자빠띠
⑤ 위슈아미뜨라

해설 : 마하빠자빠띠이다. 한자로 대애도(大愛道)라고도 하며, 나중에 최초의 비구니스님이 되는 분이다.

4.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한 목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② 세속의 속박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③ 생로병사가 괴로워 현재의 삶에서 도피하기 위해
④ 나라의 왕이 되어 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
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해설 : 출가는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세속의 속박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기 위해, 나라의 왕과 같은 세속적 지배자가 아니라 법의 왕이라는 진리의 왕이 되기 위해 나서는 길이다. 그럼으로 싯다르타 태자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승리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출가하였다.

5. 수행자‘고타마’는 우유죽으로 기운을 회복한 후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장소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반석 위에 ‘솟티야’가 공양한 풀을 깔고 동쪽을 향해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들게 된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인연을 지은 이 풀을 무엇이라고 하나?

① 길상초(吉祥草)
② 무우수(無優樹)
③ 도리천(忉利天)
④ 사라수(紗羅樹)
⑤ 백상초(白象草)

해설 : 부처님이 되시는 일은 세상에서 제일 길한 일이다. 이 제일 길함을 길상이라고도 한다. 그럼으로 솟티야가 공양한 풀은 제일 길한 풀, 즉 길상초이다. 그리고 솟티야의 다른 이름이 길상동자이기도 하다.

정답 : ①, ④ 2. ④ 3. ④ 4. ⑤ 5. ①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⑮ 진허 스님의 '콩나물 비빔국수'

▶한줄 요약
한 그릇에 정성껏 재료를 담아 국수를 내는 스님. 그리고 처마 밑 제비들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며 추억을 나누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오른다. 알싸하고 상큼한 비빔국수 맛이 여름 오후의 나른함을 날리는 시간. 이 여름 능가사 공양간에 또 하나의 추억이 새겨진다.



더위로 길 잃은 입맛 살려주는 아삭한 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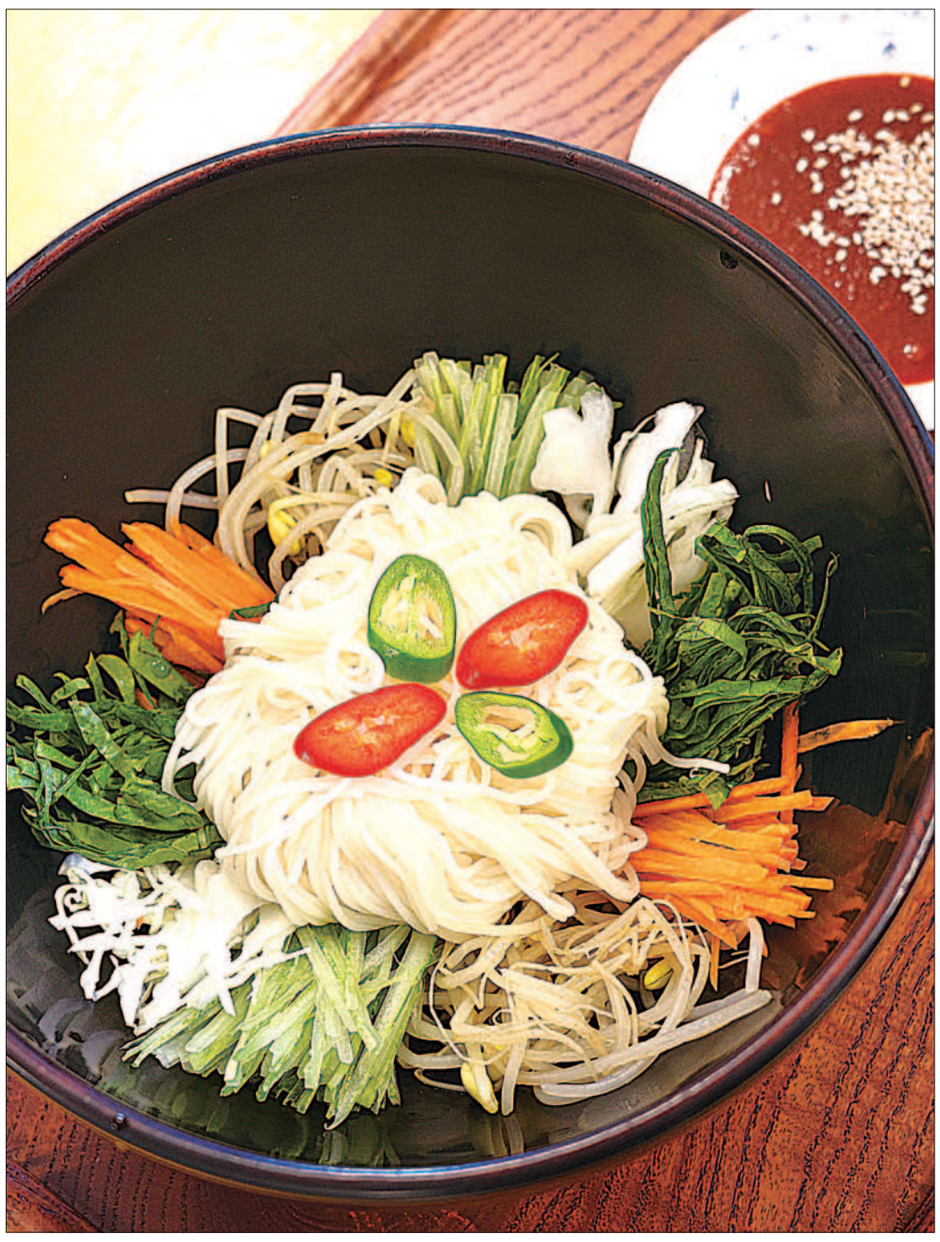
두 개의 세계를 잇는 문, '현관'.

사전적인 의미로 현관은 건축물에 들어서는 입구를 뜻하지만, 그 뿌리는 불가(佛家)에서 시작된다. 차원이 다른 두 세계의 경계에 있는 관문, 혹은 깊고 오묘한 불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를 뜻하는 현관(現觀). 안으로 들어서는 동시에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그 찰나의 신비를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산사 앞에서 마주한다.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이곳에 자리한 천년고찰 능가사(楞伽寺).

능가사의 현관은 담박하다. 아름드리 상록수 두 그루만이 지키고 선 천왕문. 휘황한 기교 없이 우직하고 담백한 이 천왕문이 바로 능가사로 들어서는 첫 번째 관문이다. 이 문의 또 다른 힘은 바로 그 은근한 존재감인지도 모른다.

깊은 산중의 오르막도, 높은 석축의 위용도 없는 마을 길을 자분자분 걷다 보면 어느새 다다르는 문. 평화로운 시골 마을, 정겨운 돌담 끝에 자리한 이 고찰의 산문은 그렇게 낮은 문턱으로 사람들을 이끈다. 저 아름답고, 오랜 빛의 세계로.





진허 스님. 채공(菜供) 소임을 살던 행자 시절부터 다져진 내공은 여전히 스님의 손끝에 남아 빛을 발한다.

진허 스님의 콩나물 비빔국수

재료 소면 3인분, 콩나물 1/2 봉지, 당근 50g, 오이 1/2개, 양배추 2장, 상추 약간.

비빔장 고추장 3~4TS, 설탕/식초/진간장/참기름/매실 엑기스/올리고당 각 1TS, 사과 간 것 1/2컵. 통깨 적당히, 콩나물 삶은 물(혹은 다시물) 1/2컵.

만드는 법
1. 콩나물은 소금물에 비린내만 가실 정도로 삶아 찬물에 헹구어 참기름, 소금으로 밑간한다.
2. 당근, 오이, 양배추, 상추는 곱게 채썬다.
3. 분량의 양념으로 기호에 따라 국수 비빔장을 만들어 놓는다.(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한다)
4. 국수를 삶아 그릇에 담고, 재료를 예쁘게 담아 장과 함께 내면 완성.

과거에서 미래로

"이제 십 년 정도 살았을까. 이곳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저 조감도를 그린 거예요. 하나하나 직접 그려가며 고민을 많이 했었지요."

진허 스님(능가사 주지)의 손끝이 향하는 곳에는 한 폭의 사찰 조감도가 있다. 푸른 산야의 품에 안긴 능가사. 그 위에 차례로 선 전각들이 지상 위의 별자리처럼 빛나고 있었다.

한때 40개 동의 전각과 10여 개의 산 내 암자가 있던 대찰, 호남의 4대 명찰로 손꼽히던 능가사.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지난한 역사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 단 부처님이 모셔진 대웅전과 응진전, 그리고 저 사바세계와 능가사를 잇는 천왕문만을 남긴 채.

하지만 현존하는 능가사의 옛 전각과 문화유산은 대부분 보물로 지정된 수작들이다. 당우와 불상, 동종까지 조선 최고의 승장(僧匠)으로 평가받는 김애립과 색난의 작품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던 것이다. 진허 스님이 능가사에 부임한 첫해부터 복원 사업에 매진한 이유다.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보물은 그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과거의 전각을 모두 되살릴 순 없겠지만, 고증을 바탕으로 최대한 옛 모습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스님이 그리는 새로운 능가사에는 사람이 머문다. 다시 살아 돌아올 전각들의 쓰임도 과거에 그러했듯, 다시 이곳을 찾는 이들을 위해 존재할 것이다.

"사찰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곳에서 신행 생활도 하고, 치유 받고,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옛 전통은 살리되,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지요."

여름을 보내며

유난히 혹독했던 계절, 산사의 여름이라고 다를 리 없다.

늦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진허 스님이 만드는 국수 소식에 공양간이 웃음으로 들썩인다. 이웃사촌 같은 신도들도, 또 사중의 식구들도 오랜만에 스님표 새참을 맞이할 참이다.

오늘의 메뉴는 '콩나물 비빔국수'. 아삭한 콩나물에 풍성한 채소, 매콤달콤한 비빔장에 썩썩 비벼 먹으면 더위로 길 잃은 입맛이 절로 돌아오는 여름날의 국수다.

어느새 도마 위에서 춤을 추는 스님의 칼 솜씨. 채공(菜供) 소임을 살던 행자 시절부터 다져진 내공은 여전히 스님의 손끝에 남아 빛을 발한다.

"이건 비밀인데 나는 행자 시절에 국수를 안 좋아했어요. 국수는 밥하는 것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갔거든(웃음)."

순천 송광사에서 보낸 행자 시절, 어쩌다 짜장면이라도 먹는 날은 전날부터 채수를 내고, 버섯과 채소를 다져야만 200여 명 분량의 한 끼를 겨우 준비할 수 있었다. 또 한껏 치댄 밀가루를 방앗간에 가져가 반죽을 내리고, 또다시 일일이 면을 뽑아 삶는 과정이 어찌나 길고 고되던지. 지금도 고개가 저어지는 옛 추억에 스님의 웃음도 함께 떠오른다.

다행히 오늘의 국수는 사찰에서도, 집에서도 뚝딱 만들어 먹기 좋은 별식. 오이와 당근, 양배추처럼 노상 곁에 있는 푸성귀와 콩나물만 있으면 재료 준비도 끝이다.

준비한 재료는 별다른 조리 과정이 필요 없지만, 식감이 좋도록 최대한 곱게 채를 썰어줄 것. 콩나물을 슬쩍 데쳐내고, 그 물에 고추장과 간장, 식초, 설탕, 참기름 등을 넣어 비빔장을 만들어 주면 양념에 감칠맛이 더한다. 단, 사과를 반 개 정도 갈아 넣어야 은은한 단맛이 나고, 설탕을 적게 넣을 수 있어 좋다고. 이제 끓는 물에 소면을 훌훌 넣고 잘 삶아 찬물에 씻어 건져주면 국수 준비는 완성이다.

"예전에도 종종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스님, 앞으로 자주 해주세요!"

"절에 김장할 때 손이 부족하면 어느새 오셔서 뚝딱 재료 손질을 해주고 가셔요. 칼질을 나보다 잘하시는걸(웃음)."

한 그릇에 정성껏 재료를 담아 국수를 내는 스님. 그리고 처마 밑 제비들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며 추억을 나누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오른다. 알싸하고 상큼한 비빔국수 맛이 여름 오후의 나른함을 날리는 시간. 이 여름 능가사 공양간에 또 하나의 추억이 새겨진다.

모두의 쉴 곳이 되기를

"마음이 나면 다 할 수 있어요! "

몇 해 전, 사찰음식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근 1년간 고흥과 서울을 오갔던 진허 스님.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데 이어 다시 바쁜 시간을 쪼개 수업을 듣고, 시험준비를 한 것은 결국 이 시대의 사찰이 준비할 몫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사찰음식만이 최고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구 환경과 생명의 공존,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까지 고려해 봤을 때 사찰음식은 아주 바람직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스님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보곤 합니다. 좋은 것은 계승하고, 또 새로운 것은 만들어 가야지요."

지난해 11월, 능가사에 큰 경사가 있었다. 과거 소실됐던 누각 대루(능엄루)가 마침내 복원돼 옛 자리에 다시 우뚝 서게 된 것. 그리고 그 날, 다시 돌아온 대루에서는 진허 스님의 진두지휘로 사찰음식 대향연이 펼쳐졌다. 스님의 바람대로 이제 이곳에선 모두를 위해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

저 멀리 능가사를 감싸 안고 선 팔영산의 비경, 화려한 꽃 무리와 수령을 알 수 없는 울창한 나무들, 고적한 전각 곁에 자리한 쉴 자리. 그리고 내내 이곳을 지켜온 대웅전의 신비까지. 모든 것이 저 우직한 천왕문 밖에서는 쉬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문을 넘어서 한 걸음을 떼면, 비로소 이곳의 진면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언젠가 저 낮은 문에 다다른다면 그저 들어서기를.

당신을 기다리는 이 아름답고, 오랜 빛의 세계로.

〈작가〉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말을 하더라도 주인공 자체로서 들이 아니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좀 굳어 있으니 우스운 얘기 좀 하고 시작하죠. 그전에 말입니다, 제가 어느 산길로 들어서서 내려다보니깐 조그마한 마을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났죠.

예전에 한 정승이 지나가는데 거지가 아들을 데리고 있다 하는 소리가 "야! 정승이 얼마나 바쁘겠느냐? 나는 그렇게 바쁘지 않고, 잠도 늦도록 잘 수 있고, 아무 데 가서도 앉을 수 있고, 아무 데 가서도 편안할 수 있고, 또 배가 고파도 가서 달라면 줄 것이고,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냐?" 하니까 아들이 있다 하는 소리가 "그러믄요, 그것이 다 아버님 덕분이죠." 하거든요.

또 거지가 아들을 데리고 휘적휘적 가다 보니깐 물난리가 나서 야단들이거든요. 아마 올같이 그렇게 물난리가 많이 났던 모양이죠. "야! 너는 참 행복하구나, 아버지를 잘 둬서."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 하는 소리가 "정말, 아버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집이 없어서 물난리 날 일이 없으니 마음 편안하고, 또 땅값을 내라니 걱정인가? 아무 걱정도 없으니 이 팔자가 상팔자지 뭡니까?" 아,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거지 부인더러 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12월 달만 되면 모두 빚들을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는 빚 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으니 얼마나 편안하냐?" 하니까, 부인이 있다 하는 소리가 "참, 당신 덕분에, 당신한테 시집을 잘 왔죠. 당신 덕분에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그 불나는 바람에 생각이 문득 났는데 나이가 어린 탓인지 몰라도 그만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자도 누가 땅값 내라는 사람이 있나. 어쩌면 그렇게 나와 똑같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팔자가 좋아서, 정말이지 기뻐서 웃었습니다.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그때가 너무 즐거웠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요즘은 여러분이나 또 우리 스님네들이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리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그러거든요, 지금은요. 그러니 그때보다야 자유스럽지 못하죠. 허허허. 그때만 지금처럼 기운이 있어서 막 웃지도 못했지마는 킥킥킥킥 하고 얼마나 웃었는지, 즐거운 웃음이었습니다. 야, 자도 땅세 내란 말도 없고, 하늘을 지붕 삼았으니 누가 세금 내라는 사람도 없고 집을 치우느라고 걱정할 것도 없고, 태울까 봐 걱정할 것도 없고, 집어 갈까 봐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으니 말입니다.

단 하나, 그전에 생각을 한 거는 그때엔 나이가 어리니깐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살이 있지만 그때는 혼자 다니기가 안됐으니까 진흙을 얼굴에다 덕지덕지 칠해서 말라붙은 채 다녔던 거밖에는 없습니다. 이 집을 누가 집어 갈까 봐 말입니다, 허허허.

참, 그때는 재미있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미있는 얘기라고 하기 이전에 지금도 때때로 그 생각을 하면 참 빙그레 하고 웃습니다. 올해도 물난리가 난 것을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서 빙그레 웃었거든요, 한편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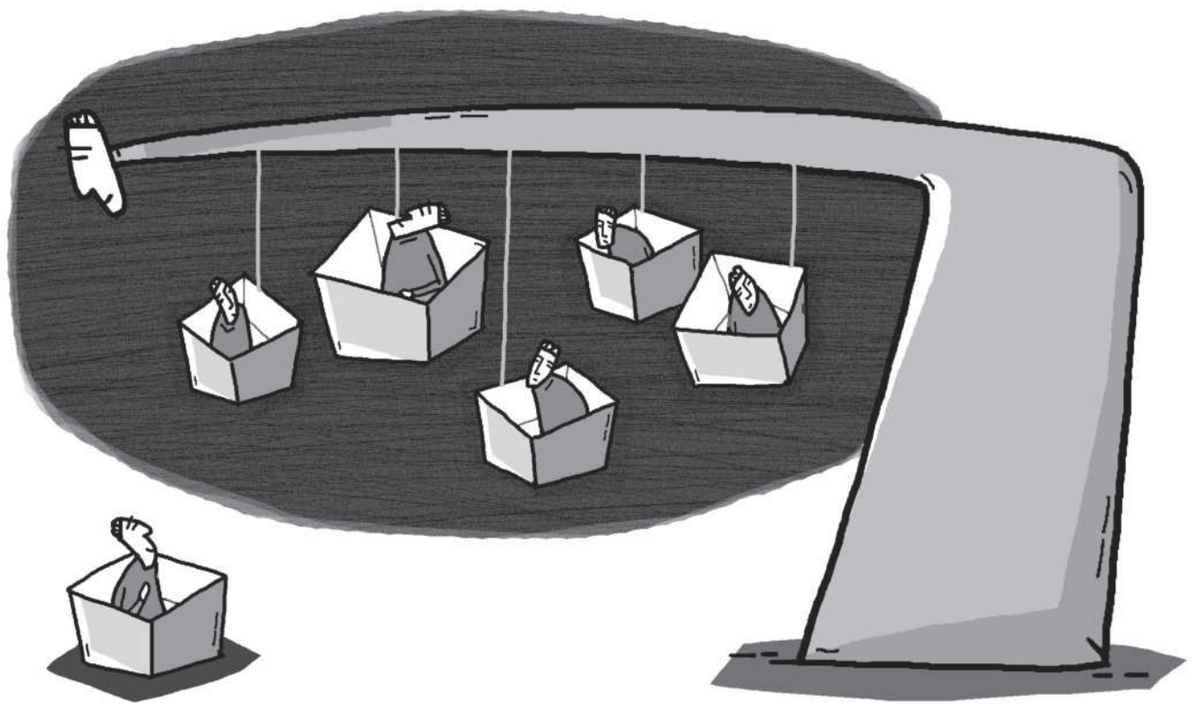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만 가지 법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만 가지 법을 들일 수도 있고 둘째, 내가 만 가지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만 가지의 모습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셋째, 내가 만 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만 가지 사람을 내가 혼자…, 이러한 뜻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지금 시대가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알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한 시루의 콩나물에 대가리 하나 낀 것밖에는 안 되는 나라, 지구 안에서도 그런데, 대천세계를 한데 합친다면 그게 먼지 알갱이만이나 할까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먼지 알갱이 같은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서로가 옳지 않다고 그 싸움을 하고 화목지 못하고 이런다면, 우리는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상전은 우리 애들입니다. 심부름꾼은 엄마 아빠가 돼야 되고요. 첫째, 참 잘해 주어야 하고, 오순도순 말도 곱고 또 융화 있게 해야 하고 잘 먹여야 하고 잘 입혀야 하고, 잘 입히지는 못하나마, 잘 먹이진 못하나마 그래도 마음을 거스르지는 말아야 하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기 이전에 인의롭게 잘 대해 주고, 그런다면 따뜻하니깐 나갔다가도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야, 이 새끼야! 너는 공부하랬더니 만날 놀러만 다녀. 대학은 언제 들어가고, 공부는 언제 하고…," "야, 이 새끼야!" 이러던 버릇이 그냥 남아서 내내 애들을 보면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되고, "야!" 이렇게 되고 부인더러도 "야!"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아니 됩니다.

나는 어려서 이런 거를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일본 사람들의 교양이라든가 그 습의 도리를 볼 때, 아내더러도 존대하는 거, 자식한테도 "해라" 하지 않는 거, 자식들이 보는 데서는 절대 싸우지 않는 것만은 참 보고 배울 만합니다. 또 남이 뭐를 주면 반드시 그 접시에 대신 다른 걸 담아서 주는 거, 이런 거를 볼 때에 아주 '사명 대사가 철저하게 버릇을 가르쳐 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을 하려다가 삐뚜로 가정 얘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이제 시작을 해야죠.

사대 오온이 다 공해서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있다 한다면, 바로 우리 이 지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혹성들, 은하계, 태양계도 거기대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양계도 수억 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혹성들이 이 오온에 가득 찬 데다가, 예를 들어서 자디잔 건 빼고도 큰 것만도 여섯 개나 되고, 그다음에 아홉 개, 그다음에 열두 개, 그다음에 열여덟 개, 그다음에 이십칠 개, 이렇게나 큰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바로 꽁지가 꽁지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렇단 말이지, 앞으로는 더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벌써 이런 말 하고 지나가면 벌써 백 년이 흘렀다는 둥, 십 년이 흘렀다는 둥, 삼 년이 흘렀다는 둥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요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벌써 일 년이 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똑똑히 따지고 보면 일 년 반이 지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면 말입니다. 그렇게 시공이 없이 빠른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허덕거리고, 이렇게 일일이 걸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은하계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은하계의 별성밖에는 되지 않는다, 별 속에 별이 있습니다. 별에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실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기에 자유롭게 살 수 있다

☞ 19면에서 계속

서 별을 낳듯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혹성이, 혹성 안에 별이, 우리는 혹성이면서도 별입니다. 별이면서도 그 속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그 생명체들이 너무도 질서 정연하게 동맥 정맥을 오르고 내리는 반면에, 모든 일체 생명들은 자기 부서를 맡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은하계도 조금도 틈이 없이 운행을 잘하고 있고, 혹성 이 지구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지구가 어디로 돌아서 어떻게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길 했지마는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그 많은 혹성 중에, 그 많은 별성 중에, 그 많은 태양계 중에, 우리 인간이 마음 자체를 발견한다면 대우주 대천세계의 섭리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 속에, 티끌 속에 있듯이. 마음으로서, '만법' 하면은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까지 다 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모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 알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릴 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좌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낮아서 눈도 멀고 귀도 뜨지 못했다면 모습을 바꿔서 짐승 속에 들어가서 짐승 모습을 타고 날 수도 있으니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 모습을 타고 났으니 그 모습의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행동을 하고,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행동을 하듯이 돼지로 태어났다면 돼지의 행을 해야 하겠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좌천보다는 승천이 된다면 마음의 세계로 우리는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세계에서 그 모두를 보고 듣고, 숙명을 알고, 타심을 알고, 천안을 알고, 천이를 알고, 신족을 알고, 법바퀴를 굴려서 이 세상에 공덕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보면 볼수록 광명이 비치고 전력 에너지가 다 그 사람의 능력을 또 이끌어 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이 말로만 학술적으로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말을 하더라도 주인공 자체로서 둘이 아니게끔 해야죠. 그래야만 말을 해도 한 사이 없이 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셔도 한 사이가 없다 하는 것은 주인공 자체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다 똑같아서 한데 합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두드러지게 '내가 말을 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하고 다 같은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묘법의 불가사의한 신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혹성에서 마음 세계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지구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발전하고 이러는 것을 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방문을 해서 모두 돌아보고 가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발되지 못하면 아마 다 송두리째 뺏겨도 뺏기는 줄 모르게 뺏길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뺏긴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뇌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냥 빼 가도 여러분은 어디다 호소 한마디 못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가졌든지 다 빼서 자기들은 마음으로 한생각에 해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십 년을 연구해서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데, 이건 물질과학이지만, 그들은 심성 과학이기 때문에 한생각에 비행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다가도 그냥 없애 버릴 수가 있죠. 우리가 말을 하다가도 말을 중지하면 말이 끊어지고 없어지듯이, 타고 다니다가도 그냥 내리면 없어져.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만 가지 모습으로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가지의 실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실상이 없고, 실상이 없기 때문에 무법천지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뭐가 있느냐? 해롭게 하려면 한없이 해롭게 하고 이익하게 하려면 한없이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도리다 이런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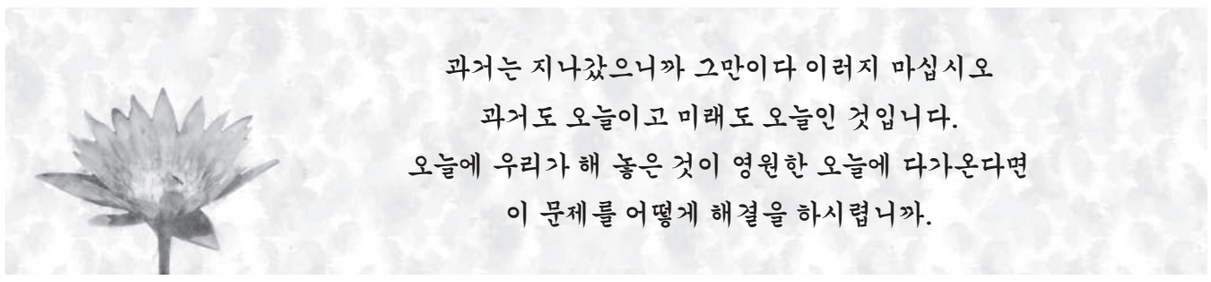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 자리냐. 그게 아닙니다. 깨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모습으로 탄생하게끔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뜨겁고 춥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구처럼 사계절이, 온기와 공기 등 모든 게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체가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그대로 자기다 이거죠. 그것은 공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뜨거워도 뜨거운 게 없고, 차도 찬 게 없고, 공기가 있으나 마나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서천국에, 사천세계에 서천국이 있다 한다면, '서천국에 아촉불국이 있노라', 또는 '도리천국에 아촉불국이 있으니'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깨쳐서 내가 미지의 세계 서천국으로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현실의 유의 세계에 회전을 하면서도 내 마음을 밝혔으면 불은 항시 켜져 있으니 아촉불이 아니겠는가? 도리천국에 아촉불국이 있다는 건 부처님 자리를 말할 수 있겠죠. 모두 너와 나와 둘이 아니게끔 될 뿐만 아니라 풀 한 포기 버리지 않는, 그 생명과 마음이 같이하니 바로 도리천이라고 할 수밖엔 없겠죠. 도리천국에 아촉불국이 한자리를 하고 있다! 내가 경전에 있는, 부처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름을 그대로 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들으시리라고 믿고 이런 말을 합니다.

실체가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동물들도,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도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체로 나오진 못했어도 여러분을 하나하나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로울 일이 너무도 많이 앞으로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만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로 봐도 작지만, 우리나라로 봐도 똑 손가락 반쪽만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들이 공부를 해서 잘된다면 땅을 더 차지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세계적으로도 융성하게 되고, 참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보고 배울 게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조그마한 나라지만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앞으로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에, 예를 들어서 산과 들로 배를 타고 다녀야 하고, 물속으로 수레 마차를 타고 다녀야 할 지경에 도달할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된다면 또 한 축, 우리는 지금 이 땅속에서 파먹을 걸 다 파먹고, 곶감 꼬치처럼 쌓아 놓은 거를 다 빼먹고 나면 먹고 살 게 없을 때…, 하기야 뒤집어서 물속이 만약에 산이 되고 들이 된다면 또 파먹을 게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옛날 얘기처럼 듣지 말고 "과거는 이렇게 지나갔으니깐 그만이지. 꿈이나 같아." 이러지 마십시오. 과거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영원한 오늘에 다가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몸이나 벗으면, 늙어서 몸 벗으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 모습을 바꿔서 또 나오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깐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늙는 것은 익어 가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늙어 가면서, 젊어서부터 늙어질 때까지 그 경험과 체험과, 그 사람이 삶의 모든 것을 익히고 늙어질 때에, 그것은 바로 벼 이삭이 다 익어서 고개가 숙어지듯이 다 익은 걸 말합니다.

살면서 어떠한 게 불편했고, 어떠한 게 좋고 싫고 이런 생각으로 살다보면 자기가 모습을 바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꼭 가지고 나옵니다. 짐승들도, 자기가 어떤 게 부족하면 꼭 다리를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꼭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니깐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 얘길 저쪽으로 하다 이쪽으로 왔는데 요거 한마디만 하고요.

사람이 짧게 하고 길게 하고 간에 사람의 씨는 사람을 낳는다. 그런데 그 사람의 씨로 사람을 낳는 것이 얼마 동안 가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는 때가 있어. 또 새가 알을 낳다가 말입니다, 새가 알을 낳고 알이 새가 되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 하다가 천 년 만에 그 새의 모습을 바꾼다. 오백 년 만에도 바꿀 수 있고 삼 년 만에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자기 차원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아까 얘기했듯 다섯 가지의 그 눈을 다 떠서 수레바퀴 굴리듯 다 굴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골수로 인해서 그것을 굴리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요, 도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가 마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모습 없는 모습들이 항간에 모습을 해 가지고도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6·25 때 저는 똑똑히 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비행기 접시도 봤습니다. 그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지구 안에서 생기지 않은 건데 어디서 났을까요? 둥글둥글하고 또 이것이 고슴도치처럼 생긴 것도 나타났죠.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있다가도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거나 그러면 그냥 없어져. 지금 비행기 뜨는 것처럼 쭈욱 가서 이렇게 뜨는 것도 아니야. 또 불이 퍽퍽 나면서 뜨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환하게 눈이 부셔서 그냥 그쪽을 볼 수 없게 하고 없어지는 그런 자체, 그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과학자들은 그런 거 한 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든지 지금 모습 없는 모습들이 살고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헛되게 생각하실까 봐 그런 얘기를 중간에 넣는 겁니다, 사실대로요. 제가 똑똑히 보지 않은 건 말 안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8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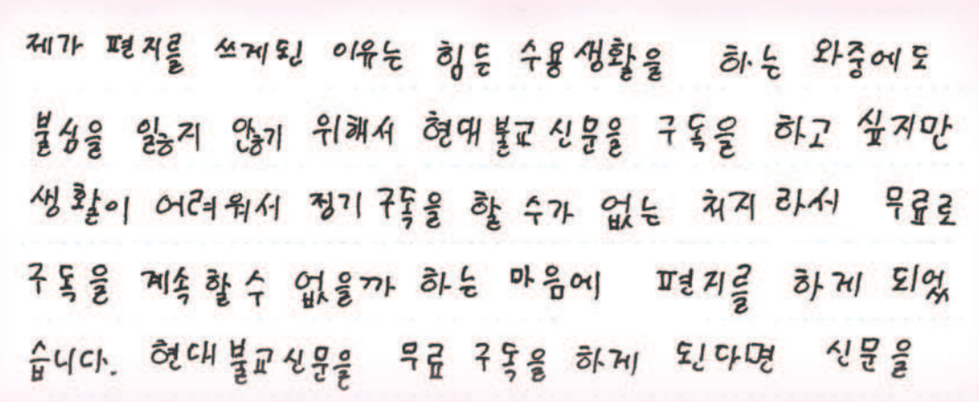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⑰ 부처님은 나와 따로 계시지 않다

즉시 부처님을 만나는 길, 염불!

정진은 '부처님생명으로 살겠습니다'하는 선언이다. 부모님으로 오신 부처님, 남편으로 오신 부처님, 자식으로 오신 부처님을 몰라뵙기 일쑤다. 어떤 날은 몸을 일으키기도 힘겹지만, 일어나서 밥을 하고 찌개 끓이고 반찬 준비해서 아침상을 차려놓았는데, 한 술도 뜨지 않고 나가면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다. 늦었다고 그냥 나가는 아이의 뒷꼭지에 대고 한마디 하려는 순간!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 떠오른다.

한 숟갈이라도 뜨고 가라시는 엄마 말씀에 '늦어서 안 된다'며 교복을 입고 매몰차게 뛰어나가던 여고 시절의 내 모습이 오버랩된다. '뿌린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지었으니 그대로 받는구나' 하면서 그 당시 속상하셨을 엄마 마음이 헤아려진다. 짓고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짓지 않았는데 받는 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다. 나 자신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아이에게는 지킬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때도 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해야 하는데 거꾸로 살고 있는 전도몽상이 따로 없다. 그렇기에 불자는 겉모양에 속지 않고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의 지혜가 열리길 발원하며 정진을 모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힘에 의해 가능해진다. 부처님의 힘은 그럼 어디에서 오는가?

이제 막 부처님법을 만난 분이 4년째 아침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한탑 스님의 〈금강경법문〉 윤독시간에 '부처님은 우리 밖에 따로 계실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읽으며, 난생 처음 들은 이 법문이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하셨다. 그동안 나와 부처님은 당연히 별개인 존재로서, 부처님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고 나는 항상 못나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며 부처님께 빌기만 해왔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와 떨어져 계시지 않고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을 주는가! 어떤 존재와도 따로이지 않으므로 이 세상엔 오직 부처님만 계시고, 설령 내 눈에 모자라 보이고 못나 보여도 그건 나의 착각일 뿐이라고 법문 들으니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의 참생명은 부처님생명이고 본래부터 부처님생명을 살고 있다. 부처님생명으로서 무량한 복덕 속에 사니 오직 감사해야 하지만,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긴다. 내 생각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운함도 자주 싹튼다. 그러나 남은 내 생각을 알 수 없다. 나도

마음의 지혜 열리길 발원하며 정진

나무아미타불에 욕심·어리석음 녹아

내 마음을 모르는데 하물며 남이 어찌 알까? 원하는 바가 있다면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현을 가로막는 내 생각, 아집과 아상! 그것을 항복받는 나무아미타불이 불자의 공부다.

경희님(가명)은 141쪽에 나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겉모양은 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모양조차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체 모든 중생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내나 남편, 아들 등은 과거에 내가 지었던 업에 따라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이나 환경들을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며, 보기에 나빠 보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법문을 읽으면서 "참 좋은 말씀인데 한편으론 무서운 말씀 같아요. 순간순간 악을 행하지 말고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과는 원인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말씀에 힘이 나요. 요새 고등학생 딸이 저를 못마땅해하고 많이 날카로워서 말 붙이기도 겁이 나는데요.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기억하든 못하든 딸에게 그렇게 느끼게끔 내가 원인을 지었으니 저렇겠구나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원인·결과를 떠올리며 마음을 돌리니 덜 서운하더라구요. 눈에 보이는 거에 휘둘리지 말고, 줄 때에도 뭘 바라고 하지 말아야겠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니까 오히려 괴로움이 더 생긴다는 걸 알았거든요"라고 말했다.

어두운 마음이 들 땐 얼른 욕심을 거둬들이는 나무아미타불을 하라고 늘 법문을 듣는다. 나무아미타불 속에 나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녹아내린다. 나무아미타불 속에 나의 업장이 소멸된다. 내 밖에 따로 계시지 않는 부처님! 그 부처님을 즉시 만나는 길이 바로 염불이다. 염불하는 순간 우리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을 친견하고 싶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으면 즉시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해보자.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생명이라고 일깨워주시는 소리, 나무아미타불!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속에서 헤매지 말고 부처로 살라는 가르침, 나무아미타불!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의 소리인 나무아미타불 염불 정진을 놓치지 않으면서 부처님생명으로 사시길 축원드린다. 나무아미타불!

(금강경법문 온라인 공부문의 bowon9@hanmail.net)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㉓ 韓方으로 건강한 몸 만들기

우리 주변 환경호르몬도 비만 원인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내분비교란물질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호르몬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부터 인간이 사용하였거나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합성화학물질의 종류는 약 10만 종에 이르는데, 이 중 공식적으로 환경호르몬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은 100여 종 정도입니다.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살충제 및 제초제 등의 농약류, 다이옥신류, 플라스틱 원료물질, 계면활성제, 중금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물질들이 생체 내로 들어오면 인체 내부의 호르몬 수용체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호르몬은 생식기능 저하, 암 발병, 알레르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소아청소년들의 발육과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환경호르몬에 많이 노출될수록 비만,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환경호르몬이 비만을 유발하는 주요한 기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호르몬은 지방세포의 생성과 축적을 촉진하고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호르몬과 신호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해 당뇨병과 비만의 중요한 기전 중 하나인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려 과식을 유발하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성 호르몬의 균형을 방해해 지방 축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호르몬 중에서도 지방조직에 저장되는 지용성 물질들은 적은 농도에서도 유해할 수 있고 우리 몸에 오랫동안 남아있어 문제점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체내에 쌓인 환경호르몬 배출을 위해서는, 식이 섬유가 많이 함유된 녹황색 채소를 챙겨드시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적절한 운동은 체내의 순환을 개선하고, 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분해 억제하는 신호에 영향

적절한 운동으로 체내 순환 개선

절식요법

한의학에서 치료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절식요법은 세포내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인자가 포식(오토파지, autophagy)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독(解毒)의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가포식의 개념은 2016년 일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음식물 섭취를 제한한 후 24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이 최대치에 이르게 되며, 자가포식 과정에서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세포 소기관이 분해돼 체외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절식기간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므로 지방세포에 저장된 환경호르몬의 방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켜 혈당 조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절식요법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음식을 서서히 줄여 절식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절식 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 시기와 식이요법기에 걸친 단계적인 음식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해독 돕는 한약재

해독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들은 간 기능을 개선하고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진호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간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결명자는 간의 해독능력을 증진하고, 소화기 계통을 개선하여 체내 독소배출을 돕습니다.

△황금, 황련과 같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한약재들은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간 기능을 보호합니다.

△산사, 생강과 같은 한약재는 소화를 돕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체내 독소 제거를 돕습니다.

△대황은 장운동을 촉진하여 체내 독소를 신속히 배출하고, 간의 해독 기능을 강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침, 뜸, 부항치료는 경락과 특정경혈을 자극해 체내의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고, 림프순환을 촉진해 해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적 해독요법은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해 사용될 수 있으며, 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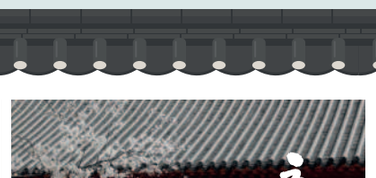
한경선
동국대일산불교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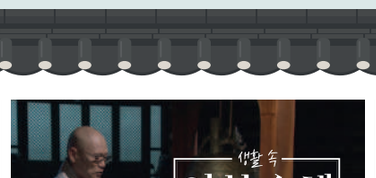
BTN ORIG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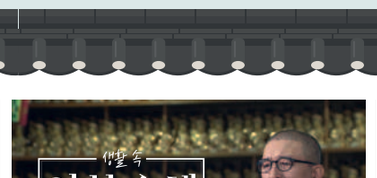
BTN이 여러분의 도반입니다
신행생활에서 수행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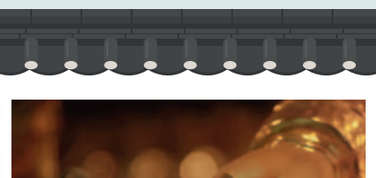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BTN특별기획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본방송 화 14:00
재방송 수 15:00 / 목 13:00 일 09:00


출가
본방송 화 09:30
재방송 화 21:30 / 수 16:30


불교TV무상사 일요초청법회
본방송 목 15:00
재방송 목 23:15 / 일 07:00


생활 속 염불수행 -화암스님의 정근
본방송 월~일 06:30


생활 속 염불수행 -영인스님의 독경
본방송 월~일 11:30
재방송 월~일 04:20


가족신행공동체를 위한 BTN가족기도
본방송 일 12:00
재방송 월 15:00 / 목 17: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전법 일기

“음성공양도 기도”란 단원들 나도 불자로 거듭나게 됐다

2017년 홍법사의 동림소년소녀합창단을 시작으로 내가 사찰의 합창단을 지휘한 지 약 7년이 지나고 있다. 여러 사찰의 합창단을 지휘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처음으로 발원을 세우면서 지금의 나로 거듭날 수 있었다. 지금은 사찰의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는 나에게도 사실 내가 불자인지 아닌지 인식이 희미했던 때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절에 갔던 터라 너무 익숙해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랬던 나를 진짜 불자로 거듭나게 해준 합창단이 있는데 바로 김해 보현사의 ‘수냐 합창단’이다.

내가 김해 보현사 수냐 합창단을 지휘하게 된 것은 2019년 10월이었다. 사실 수냐 합창단의 지휘 제의를 받았을 때 걱정이 많았다. 아이들 합창단을 지휘한 경험은 있었어도 나보다 어른이신 분들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첫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합창단 단원들이 너무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환영해주셨다.

오히려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다른 부분에서 힘든 일이 생겼다. 아이들 합창단과 달리 사찰의 성인 합창단은 매달 초하루, 백중 기도 등 사찰의 다양한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한다. 사찰의 행사에서 음성공양을 지휘한다는 건 당시 초보 지휘자였던 나에게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힘든 내 마음은 곧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으로 바뀌었다. 수냐 합창단에는 합창단을 이미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 합창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분, 악보를 전혀 모르는 분들처럼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단원들이 오로지 부처님에 대한 신심으로 음성공양을 하지 않는가. 게다가 매주 진행하는 합창 수업시간에는 찬불가를 배웠는데, 단원들이 이것 자체가 법문이라고 하시니 오히려 지금까지 생각 없이 절에 다니며 불자라고 생각했던 철없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단원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불자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수냐 합창단 단원들과 소통하며 정말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 지금까지 사찰에서 노래하고 지휘하는 모든 활동들을 되돌아보며 이후 합창단의 지휘를 내 직업 혹은 일로써가 아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랐다.

최근에는 사찰마다 합창단이 하나씩 생겨나는 것 같아서 불자 지휘자인 나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내가 사찰에서 합창단을 지휘하다 보니 합창단에는 세 박자가 잘 맞아야 한다고 느꼈다. 첫째, 스님들의 지원과 관심, 둘째, 불교 정서를 가진 지휘자와 반주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찬불가를 기도라고 하시며 음성공양을 해주시는 단원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더 즐거운 불교, 신나는 불교, 힙한 불교라 하지만, 이는 결국 사찰을 사랑하고 신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앞으로도 나는 사찰 합창단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함께 노래하는 이 순간들이 곧 내 발원이자 기도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겠다.



이지윤
홍법사 동림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⑧ 혁신적인 기술에 대하여

혁신적 변화에 불교, 정견 제시해야

종교는 그 속성상 전통을 지향한다. 이러한 이유로 종교는 기존의 세계관에 위배되는 새로운 질서에 대하여 우려의 입장을 보인다. 종교계는 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도입되는 현실에 대하여 일종의 불안감을 표현한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 기준을 검토하려는 노력이지 새로운 세계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선수행의 전통을 자랑하는 한반도의 불교는 오히려 혁신적 모습을 보인다. 선사들의 가르침에 따라 기존의 것들을 넘어서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설봉 의존(雪峰義存) 화상은 〈선문염송〉의 786칙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계가 한 자 넓으면 고경(古鏡)이 한 자 넓어져야 하고
세계가 한 장 넓으면 고경이 한 장 넓어져야만 한다네.
(世界闊一尺 古鏡闊一尺 世界闊一丈 古鏡闊一丈, H76, 585a3-5)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옛 거울(古鏡)도 새롭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불교의 본래 면목은 전통을 맹종하는 고루함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다. 질병에 따라 합당한 약을 제시하는 응병여약(應病與藥)의 태도이며, 형편에 따라 적합한 가르침을 제시하는 방편시설(方便施設)의 자세이다. 불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태를 목도하며 저 변화상을 꿰뚫고 정견을 제시해야 한다.

군사, 의료분야 기술 발전 빨라
두 분야 윤리 책임과 무관 적용
선수행 바탕 韓불교 혁신 내재

우리 시대의 혁신적 기술들은 특히 두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하나는 군사 분야이다. 최첨단 무기들은 당대의 과학기술에 힘입어 윤리적 책임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 다른 분야는 의료분야이다. 현란한 생명조작 기술에 힘입어 의료계는 철학적 성찰과 무관하게 혁명적으로 비약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과학기술은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두 분야로 공간 이동하여 기묘하게 움직이고 있다. 살활(殺活) 자재의 경지는 선승들의 지혜가 드러나는 자리로 불성과 무명에 대한 공간이었다. 이 점에서 선수행의 전통은 첨단 과학기술과의 대비를 통하여 생명(生命)을 원천적으로 검토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생명은 살아 있음(生)에 대한 명령(命)이어야 하므로!

광활한 대지(土)가 펼쳐져 있는 들판(一)에 삐죽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丿)들은 살아 있음(生)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싹이 피어나듯 생(生)이라는 글자는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사람(人)이 일생(一)을 통하여 고개를 조아리며 무엇인가를 빌거나 묻는 형국(卽)이 바로 명(命)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생명을 ‘삶에 대한 명령(生命)’으로 읽기보다 생명과학에 바탕을 둔 개체성으로 읽는 것에 익숙해졌다.

코끼리를 더듬는 많은 맹인들이 혼란스럽게 말들을 하지만
옛 거울 앞에 서면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난다네
(摸象衆盲徒亂說 當臺古鑑見著殊, 〈선문염송〉 H76, 566b17-18, 海印信)

옛 거울 앞에 서서 삶에 대한 명령에 따라 법의 성품을 일깨워야 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며,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천명(天命)과 본성을 따르는 솔성(率性)의 가르침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잊혀질 권리’ 지킬 제도 필요하다

이미지 합성 인공지능 딥페이크(Deep Fake)를 활용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가 자행되는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국내 가입자 수만 22만 7천명에 이른다.

딥 러닝(Deep Learning)과 거짓(Fake)의 합성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은 고인 혹은 반려동물의 이미지를 만들어 추억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합성의 정교도가 높아지자 일반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했다.

합성되는 인물 이미지는 대부분 일반인 SNS 게시물에서 가져온 것이다. 게시된 이미지, 영상의 얼굴을 복사해 음란물에 삽입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인터넷에 남긴 족적이 부지불식간에 변질돼 업(業)으로 남게 됐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카르마’로 불리는 업이다.

사사키 시즈카 하나조노대 불교학 교수의 〈인터넷 카르마〉에서는 현 시대 ‘인터넷 카르마’와 ‘잊혀질 권리’에 대해 설명한다. 인터넷 카르마는 실제 현상을 부풀리거나 심지어 진실과 다른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또한 결과물은 본인 의지와 달리 복제·재생산 되면서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마저 빼앗는다. 현재 딥페이크 범죄가 그렇다.

딥페이크 범죄는 2022년에도 ‘지인방’이란 이름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서 이뤄졌다. 2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유형의 범죄가 발생함은 관련 범죄를 규제할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빠른 기술의 개발과 활용으로 제도가 사회현상을 뒤따르지 못했다.

불교계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적어도 불자들은 인터넷에서 행동을 조심하거나 범죄물을 소비하지 않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과 연대해 제도 개선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딥페이크 범죄 관련 규정 제정, 강력 처벌을 촉구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비심을 가진 불자의 실천행이다.



김가령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갑작스레 찾아온 뇌출혈,
굳어버린 가장의 몸

대뇌혈관 막혀 몸 절반 마비
입원치료에만 병원비 30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간다라서 만난 붓다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승가 사라져 유적 남은 파키스탄
출가자 부족 韓불교도 고찰해야
순례하며 우리 불교 미래 고민해

오늘이 한국을 떠나 파키스탄에 온 지 열흘째다. 꼭 한번은 오고픈 곳이었지만, 이제야 연이 닿았다. 이 간다라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생각했다. B.C 327년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북부를 다녀갔고, 이후 300여 년이 지나 등장한 문화가 간다라 미술과 〈밀린다왕문경〉이다. 이어서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 대왕이 포교사를 통해 간다라까지 불교를 전했다. 또 한 가지는 쿠샨왕국의 카니슈카 대왕이 초기불교 학파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어느 강의를 하든 그 강의 주제와 관련해 불교역사를 첫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간다라는 불상과 더불어 잠깐 소개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 파키스탄의 간다라[페샤와르 일대]와 여러 지역을 순례하면서 불교역사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갖게 됐다. 한 마디로 이번 간다라 불적 순례를 통해 불교학과 종교로서의 불교에 대해 입체적으로 정립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각(正覺)이 단초이지만, 2000여 년 간 수많은 논자들의 논리가 덧붙여져 지금의 불교가 존립한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수행의 종교'를 넘어 대승불교의 '신앙의 종교'가 형성되었기에 불교가 세계적인 3대 종교가 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불교학의 지평이 넓어지고 대승불교의 신앙적인 측면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던 곳이 간다라 지역의 불교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간다라는 외세 침입이 잦은 곳이라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어우러져 새로운 불교를 꽃피웠다는 점이다.

첫째, 탑(Sutpa) 숭배이다. 불멸후 사리는 승려들이 아닌 재가자들이 모셨다. 이후 아쇼카 대왕을 기점으로 부처님 사리탑이 인도 전역에 수백 수천 곳에 모셔지면서 부파불교 교단의 승려들도 점차 탑을 모시기 시작했다. 한편 탑 숭배를 기점으로 대승불교는 발전을 거듭한다. 간다라 유적을 통해 만나는 탑 숭배는 곧 불교의 신앙적인 면모로 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둘째, 간다라불교의 최극점은 불상의 등장이다.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와 동양의 불교가 결합되면서 불상과 보살상이 등장했다. 곧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인도인들에게 위대한 성자를 형상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셋째, 초기불교와 대승불교가 동시에 발전되었다고 본다. B.C. 1세기 전후 대승불교가 등장했어도 부파불교에 비해 대승불교는 열세했고, 카니슈카 대왕이 협존자를 상수로 500명의 승려가 카슈미르지방에서 결집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하여튼 간다라에서 발전한 불교는 대승사상이 돋보이는데, 보살상에는 미륵과 관음보살이 두드러진다.

넷째, 간다라불교에서 느낀 점은 수백여 사찰이 있었고, 어느 곳에는 수백여 명의 스님들이 기도하고 수행했다는 점이다. 곧 이 승려들에게 공양 올리는 신자들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그 당시 간다라 불교 면모가 어떠했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한 마디로 간다라불교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더 나아가 불교 최고의 르네상스를 구가했다고 본다. 그런데 필자가 하고픈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다. 불교는 불법승 3보의 종교이다. 불보와 진리는 최상승 존재이지만, 승보가 없이는 불보와 법보는 존재할 수 없다. 솔직히 파키스탄 불적 순례를 하면서 이렇게 번성했던 불교가 왜 그렇게 사라져야 했나? 필자가 간다라를 순례하면서 마음자리 행간 행간에 우리나라 불교를 염려했다. 수백년 후, 각 교구본사에 예불하는 승려가 있을까? 지금 현재 출가자 부족이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불교가 간다라 불교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제행이 무상이지만, 이 진리는 맞지 않았으면 한다. 어떤 강구책이 없을까?

폭염의 책임론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더워도 너무 더웠다. 입추를 보내고 처서가 지났으나 더위는 꺾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언젠가 더위는 마침표를 찍을 것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올여름 폭염은 잊힐 것이다. 내년 여름이 올 때까지. 올해 열대야가 최대 일수를 갈아치웠다는 뉴스는 모두가 이미 체감하고 있기에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다들 더워서 힘들다는 소리는 입에 달고 지냈지만 폭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작년에 '지구 온난화'는 끝나고 '지구 가열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지구 기온이 따뜻해지는 걸 넘어서 펄펄 끓는다는 이 선언의 위중함이 좀체 대중들에게 가 닿지는 못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기후 위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기후'가 무엇인지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기후란 공기, 물, 나무, 흙, 인간 활동, 대기의 흐름, 해류, 빙하 등의 물리적·화학적·역학적인 관계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저 열대, 온대로 구분 짓는 그런 피상적인 기후가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기후라는 얘기다. 우리 조상들이 지구 곳곳에서 문명을 꽃피우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관계가 안정적이었던 덕분이다. 우리는 모든 것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갈 것이다. 이 관계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인드라망이라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관계는 항상 변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속도다.

기온 상승의 원인이 온실가스를 과다배출한 때문인데 그렇다면 온실가스는 대체 어디서 이토록 많이 배출되고 있는 걸까? 날마다 먹는 음식을 한번 살펴보자. 들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이며 기르는 가축으로는 그 많은 식당에 고기를 공급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을 온갖 마트며 식품매장에 꽉꽉 채울 수는 더더욱 없다. 축사에다 수많은 가축을 몰아넣고 길러야 하며 가축에게 먹일 사료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공급해야 한다. 이 가축들은 정해진 시점에 고기로 상품이 되어 이윤을 창출하는 그야말로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길러지고 도축되고 유통되어서 식탁에 오른다. 사료로 쓰일 콩이며 옥수수를 재배하려 아마존 열대우림은 무참히 사라지고 있다. 열대우림은 지구의 허파이고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지만 고기 한점을 지구의 허파와 맞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

대부분 식당에는 고기 메뉴가 점령하다시피 했다. 비빔밥에도 김치찌개에도 심지어 된장국에까지. 어쩌다 이토록 고기가 넘쳐나게 되었을까?

OECD 36개 나라에서 현재 육류 소비를 절반만 줄여도 기후 위기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한다. 내 입으로 들어오는 고기 한 점과 올여름 폭염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이제 폭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연해질 것이다.

社 說

9·28 불교도대법회에 거는 기대

9월 28일 광화문, 명상센터 탈바꿈…108개 선명상 프로그램 발표
진우 스님 '5분 선명상' 선포… 3만여 대중 5분 선명상 체험 장관

2024 불교도 대법회 집행위원회가 8월 27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법회 봉행 계획을 공개했다.

전국에서 스님과 신도 3만 명이 동참하는 이날 불교도 대법회는 수계의식, 승보공양, 국제선명상대회, 음악회 등으로 구성됐다. 불교 전통의식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규범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제안하고 이를 함께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수계의식은 불자들이 지켜야 할 오계를 현대적 언어로 재해석, 수지하는 자리다.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눔을 생활화 하자' 등 공동체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승보공양법회에서는 승보공양 의식을 오계의 덕목과 내 감정을 절제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공경의식을 시연한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4시부터 이뤄지는 '국제선명상대회'다. 국제선명상대회는 한국불교가 지켜온 정신적 가치와 전통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마음의 평화, 세계평화, 국민 행복의 마중물이 될 선명상을 제시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조계종이 진우 스님의 진두지휘로 1년간 준비해 온 108가지 선명상 프로그램이 발표되는 점이다.

특히 진우 스님의 '선명상 선포'를 주목할만 하다. 대회에서는 진우 스님이 '5분 명상'을 선포함과 동시에 광화문광장은 3만여 불자들이 동참한 5분간 '순간의 고요함'이 연출될 전망이다. 5분간의 고요 속에 선명상이 이어진 후에는 모든 대중이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평화의 기도' 합송으로 국제선명상 대회는 대미를 장식한다. 조계종은 이후 전 국민에게 '하루 5분 선명상'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집행위원장 성화 스님은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사회 양극화, 세대·이념·계층간 갈등, 무한경쟁, 인간성 상실, 공동체 붕괴 등 사회적 병리현상 극복을 위해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정신문화혁명을 이끌고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한국의 선명상이 세계 정신문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첫걸음"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서점가에는 불교와 명상관련 서적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가 8월 27일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어로 재해석한 〈초역 부처의 말〉이 9주 연속 종합 베스트셀러 20위권에 올랐다. 특히 7월에는 2030 세대 내 판매량이 전월 대비 20.9% 상승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불교 전법·포교는 적기를 맞았다. 이번 대회가 불교와 선명상 대중화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불기2568년
종도 하계연수교육

불기2568(2024)년 종도(스님, 법사님) 연수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본 종단의 포교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종도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 시 : 2024년 9월 24일(화) 오후2시 ~25일(수)
■장 소 : 교원도고연수원 (충남 아산시 선정면 신성길 27-6)
■신 청 : 각 지역교구 또는 총무원으로 접수
■비 용 : 10만원
■준비물 : 가사, 장삼, 세면도구

불기 2568년(2024) 9월 4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9월 4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9월 4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한국관광학회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24년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

2024.9.1 - 10.25



참가기준

참가 자격
일반인, 대학(원)생, 연구자(내국인, 외국인)

참가 형태
개인 또는 팀(공동연구는 최대 4인까지 허용)

참가 방법
논문 및 관련 양식 작성해서
이메일(tosok.hfm@gmail.com)제출

진행 방법
논문 제출 후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추진일정

논문접수 '24.9.1~'24.10.25 → 1차심사 결과발표 '24.11.4 → 본선 발표 및 우수논문 시상식 '24.11.15

우수논문 시상

구 분	주제 부문별 시상 수		시상금	시상금 합계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최우수상	1팀	1팀	300만원	600만원
우수상	1팀	1팀	200만원	400만원
장려상	2팀	2팀	100만원	400만원

※ 수상 기준 미달 시 수상자가 없을 수 있으며, 시상 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
※ 공모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게재 확인서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제출해야 함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기획팀 : 02-2031-2025

한국관광학회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접수 및 문의

(사)한국관광학회 호텔외식경영분과 학회 사무국
이메일 : tosok.hfm@gmail.com